

메가 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니타이트 대출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정보기관, '수개월 내' 인공지능(AI) 위협 다가온다

북한·중국·러시아 주목
신속한 방어 조치 필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 동맹은 적대적인 해의 세력의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공격이 수개월 내 서방 정부와 기업을 압도할 수 있으므로 방어 조치를 신속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3일 파이널셜 타임즈가 보도한 공동 경고에 따르면, 파이브 아이즈 동맹 사이버 책임자들은 AI 기반의 파괴적인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수년이 아닌 수개월 내에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등으로 구성된 정보 동맹이다. 제2차세계 대전 중 암호 해독 협력에서 시작되어 1946년 미국·영국 협정을 통해 공식화된 이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포괄적인 신호 정보 및 정보 공유 네트워크



2023년 10월 16일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열린 '신기술 및 혁신 보안 정상회의(Emerging Technology and Securing Innovation Summit)'에서 (왼쪽부터) 마이크 버시스 호주 보안정보기구(ASIO) 국장, 데이비드 비노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앤드류 햄튼 뉴질랜드 보안정보국(NZSIS) 국장 겸 최고경영자, 켄 맥칼럼 영국 보안국(MI5) 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FBI 제공]

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경고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미국의 지정학적 적대국들이 첨단 인공지능을 사이버 작전에 빠르게 접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

음을 반영한다.

파이브 아이즈 관계자들은 서방 국가들이 현재 선도적인 상업용 AI 모델과 군사 및 정보 작전에 AI를 더욱 강력하게 통합한 덕분에 우위를 점하

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점이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경고는 미국이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에 외국인의 최첨단 모델 접근을 제한하

라고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발령되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미 이러한 위협의 증거를 발견하고 있다.

구글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은 지난 5월 인공지능을 이용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실제 작동하는 사이버 무기로 변환시킨 공격을 차단했다고 밝혔는데, 수사관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 해킹 그룹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파이브 아이즈의 경고는 차세대 '프론티어' AI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과 방어 모두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파이브 아이즈 관계자들은 현재로서는 서방이 여전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지만, 대비할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비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김상한 기자

대한민국 32강 진출 확률 91%...“패배는 없다”

한인 업소들, “계속 이기면 월드컵 특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A조 2차전 멕시코에 아쉬운 패배를 뒤로 하고 한인들이 다시 모인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다.

한인밀집지역은 다시한번 붉은 물결에 승리의 “대~한민국” 함성으로 뒤덮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축구 대표팀의 32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인들의 응원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현재 북중미 월드컵 A조에서 승점 3점으로 2위에 올라 있다. 멕시코가 승점 6점으로 일찌감치 32강 진출을 확정할 가운데 한국은 체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앞서고 있다. 골득실에서도 한국(0)은 체코(-1), 남아공(-2)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32강 진출 확률을 91.22%로 전망했다. 한국은 남아공전에서 승리하면 자력으로 32강에 진출하며, 무승부를 기록하

라도 조 2위 확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패할 경우에는 멕시코-체코전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인들의 남아공전의 응원 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 2차전 멕시코와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거리 응원에 1만여명이 모이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인들의 응원 열기는 24일 오후 9시(동부시간)에 벌어지는 남아공과의 3차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 임모씨는 “집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 거리 응원에 가족들과 함께 참여할 계획”이라며 “오랜만에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칠 생각에 기분이 들뜬 상태”라고 말했다.

대규모 거리 응원을 진행하는 LA 레드스(Reds) 운영위원회는 경기 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행사에는 K-팝 댄스 쇼케이스를 비롯해 전통 무용 공연과 밴드 공연, 태권도 시범 등이 무대에 오른다.

타운 내 한인업소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앞선 경기마다 거리 응원 먹거

리 수요가 크게 늘어난 만큼 남아공전의 특수를 예상하고 있다. 실제 멕시코와 2차전이 열린 지난 18일 한인타운 내 식당과 주점들에 응원 수요가 몰리면서 판매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당시 치킨업계도 주문이 폭주하면서 일부 업소의 경우 1시간 이상 주문 대기열을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한 한인 업주는 “월드컵 응원 수요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3차전은 물론 32강 진출이 확정되면 응원 소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남상욱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반지매입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울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LA 냉동창고서 일주일째 불...대기오염 우려도

8천500만 파운드 식품 때문에 진압 어려워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산업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23일 일간 LA타임스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LA 보일하이츠 냉동창고에서 불이 난 뒤 이날까지 소방 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재는 창고 위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이 바로 아래 위치한 49만1천 평방 피트(약 4만6천㎡) 크기의 리니지 식품 냉동창고로 옮겨붙었다.

진화 작업 시작 후 6시간 만에 불길이 잡히는 듯했지만, 19일 강풍이 불면서 창고 내부에서 다시 화재가 시작

됐다. 가장 큰 난관으로는 창고 구조가 꼽힌다.

냉동창고는 거대한 아이스박스나 냉장고에 가까우며 금속 벽과 두꺼운 단열재 때문에 해체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LA타임스는 설명했다.

완전 진화를 위해서는 내부에 숨겨진 불씨까지 찾아내야 하지만, 창고 안에 8천500만 파운드의 냉동식품이 차 있어 진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이미 무어 로스앤젤레스소방국(LAFD) 국장은 "내부에 8천500만 파운드의 냉동식품이 차 있고 건물 구조 때문에 내부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방국은 2층 높이의 벽을 허물고 건



로스앤젤레스 보일하이츠 화재

[신화=연합뉴스]

물 내부에 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7일 간 이어진 화재로 대기오염 우려

도로 유독한 물질은 없으며 인근 지역의 대대적인 강제 대피를 진행하지 않았다.

질 존스톤 UC 어바인 환경보건학부 교수는 "(연기)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흡입하는 양도 늘어나고 잠재적인 위험이 증가한다"며 "산불 연기에 노출 되면 조산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도시 화재 역시 유사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LA 시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20일 공동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섰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시 당국이 대응하는 동안 주 정부는 응급 작전을 지원하고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N95 마스크 550만개를 배포하기로 했다.

BofA "연준, 9월부터 연내 3회 금리인상 예상"

"연준 기조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매도적임을 시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도이체방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두 번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BofA는 3회, 도이체방크는 2회 각각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두 금융사는 이전까지는 올해 금리 동결을 예상했었다.

BofA는 22일 낸 보고서에서 연준이 올해 9월, 10월, 12월에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투자은행(IB)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전망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BofA 애널리스트들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과 케빈 위시 의장의 발언에 비춰볼 때 연준의 대응 기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도적(통화 긴축 선호)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가 분명히 악화됐다"면서 현재 예상되는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5%, 1년 전보다 거의 70bp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케빈 위시 연준 의장

[연합뉴스]

이어 "연준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도 그냥 지나치려 했으나 최근 공급 충격으로 인해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또 주택 시장이 주도한 물가 상승 둔화 움직임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도이체방크도 19일자 보고서에서 연준이 올해 9월과 12월에 각각 25bp씩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도이체방크는 이 같은 전망은 양면에서 틀릴 수 있다고 봤다.

매도적으로 보면 연준이 7월에 조기 금리 인상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비

둘기파적 시각으로 보면 최근 에너지 가격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금리 인상의 시급성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LSEG에 따르면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 예상치 평균은 약 41.2bp다. 두 번이 채 안 되게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본다.

BofA와 도이체방크 모두 연준이 2027년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BNP 파리바와 맥쿼리를 포함한 몇몇 증권사들도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 결승전 참석한다

관람 후 우승팀에 트로피 수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을 참관한다.

지난 12일 미국과 파라과이의 개막전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만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뉴저지에서 열린 2025 FIFA 클럽월드컵 결승전을 직접 관람한 바 있다.

그날 잉글랜드 명문 클럽 첼시가 프랑스의 강자 파리 생제르맹(PSG)을 3대0으로 꺾으며 완승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첼시에 우승 트로피를 직접 건넸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전광판에 잡히거나 시상을 위해 그라운드 내려갔을 때 관중의 야유에 직면한 바 있다.

미국을 비롯한 북중미 3개국에서 월드컵이 개최되고 있고, 미국 축구 대표

팀도 D조 조별리그에서 연승하며 선전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2일 미국과 파라과이의 개막전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만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뉴저지에서 열린 2025 FIFA 클럽월드컵 결승전을 직접 관람한 바 있다.

그날 잉글랜드 명문 클럽 첼시가 프랑스의 강자 파리 생제르맹(PSG)을 3대0으로 꺾으며 완승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첼시에 우승 트로피를 직접 건넸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전광판에 잡히거나 시상을 위해 그라운드 내려갔을 때 관중의 야유에 직면한 바 있다.



지난해 2025 FIFA 클럽월드컵 결승전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신화=연합뉴스]

워싱턴 날씨 (°F)

| | | | | | |
|--------|-------|--|--------|-------|--|
| 25일(목) | 88-69 | | 28일(일) | 84-67 | |
| 26일(금) | 89-69 | | 29일(월) | 86-68 | |
| 27일(토) | 80-66 | | 30일(화) | 92-72 | |

6월 24일(수) 84-62

"새로운 시작"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센터빌 중앙상교회 근처 5 에어커 전월주택 \$1,050,000 **특점**
최신 수영장, 차고 2, 방 3, 화 3

레스턴 싱글홈 **셀러 구매**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799,000 **특점**
차고 2, 방 5, 화 3, 워크아웃 룸

현턴 럭셔리 타운홈 \$850,000 **특점**
차고 3, 방 3, 화 3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미국과 한국의 은퇴연금 고갈 시점 엇갈린 행보

한국은
국민연금 고갈 2069년으로 4년 늦어져
증시 호황에 기금 운영 수익률 82% ↑
미국은
소셜연금 고갈 시점 2032년, 2년 빨라져
은퇴자·연금 신청 증가에 고갈속도 가속

고령화 시대에 은퇴 시니어들의 기본 사회안전망인 노후 연금 소진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고갈 시점이 늦춰진 반면에 미국의 사회보장연금(소셜연금)의 고갈 시점은 해마다 앞당겨지고 있어서다. 엇갈린 노후 연금 행보에 한국과 미국의 시니어들의 노후 삶 전망도 맑음과 흐림이 교차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의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19일 발표한 '기금운용실적 개선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전망보다 재정수지 적자 전환은 2년, 기금 소진은 4년 늦어진 수치다. 예정처는 당시 적자 전환 시점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예상한 바 있다.

연금의 고갈 시계가 늦춰진 건 한국 주식 시장 활황 덕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18.82%였는데, 한국 내 주식 수익률이 82.44%에 이르렀다.
이에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1458조원으로 전년보다 245조원 증가했다. 올해 3월 말에는 1526조1000억원으로 늘어 2023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약 2년 만에 500조원



가까이 늘었다.
한국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진 것과는 달리 미국 소셜연금의 고갈 시점은 해마다 앞당겨지고 있다.
지난 2021년에 전망했던 소셜연금 고갈 시점은 2034년이었고, 2023년에는 2033년 말로, 2025년에는 2033 하반기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

됐다. 최근 조당적 재정정책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은퇴연금신탁기금은 오는 2032년 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년 사이에 고갈 시점이 2년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기금 고갈은 소셜연금 지급액이 일괄적으로 24% 감축돼 개인당 평균 500달러씩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6년 후엔 소셜연금 수혜자들은 평균 490달러 감축된다는 전망이다.
소셜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데는 한국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가 자리잡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대열 합류와 고령화가 더해지면서 연금기금의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금 고갈 우려에 소셜연금의 조기 수령 수까지 겹치면서 소셜연금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남상욱 기자

뉴욕주 'ICE 등 법 집행요원 마스크 금지'에 소송

뉴욕주가 연방 법 집행기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자,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며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뉴욕주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주는 2027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법 집행기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 및 개인 식별 정보 의무화, 영장 없이 학교·의료시설·주택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지방정부 경찰과 연방 이민당국 간의 협력 금지와 같은 이민 정책 관련 조치를 포함했다.

해당 예산안은 지난달 뉴욕주 의회를 통과했으며 호컬 주지사가 서명까지 완료한 상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위헌적인 시도"라면서 이번 조치가 연방기관의 법 집행을 위축시키고 민감할 수 있는 법 집행 작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법 집



이민단속 현장의 ICE 요원들

[로이터=연합뉴스]

행 요원들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매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단순히 직무를 수행했던 이유만으로 신상 공개나 괴롭힘을 당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ICE 요원 등이 얼굴을 가린 채 단속에 나서는 것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시민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법 집행관들이 신상 공개와 괴롭힘, 보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버지니아·뉴저지·캘리포니아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며, 법무부는 이들 주에 대해서도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6월 제조업 일자리 감소 "팬데믹 이후 최대"

6월 들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팬데믹 충격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설문 기반 경제지표가 나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의 세부지표인 고용지수는 지난 5월 51.60에서 6월 47.0으로 4.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팬데믹 시기인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제조업 종합지수는 5월 55.1에서 55.7로 상승해 202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 지수가 50을 웃돌면 확장, 밑돌면 위축 국면에 있음을 의미한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크리스 윌리엄슨 수석 산업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사는 현재 생산 수준이 2분기 중 연율 기준 1%를 크게 웃도는 속도로 성장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부합함을 시사한다"라고 평가했다.
공급 지연 현상이 6월 들어 더 광범위하게 확산한 가운데 기업들의 재고 축적 움직임이 제조업 성장세를 일시적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시간주 자동차 공장 [AFP=연합뉴스]

윌리엄슨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부문 고용 하락에 대해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공장 일자리 감소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는 최근 수요 반등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원자재 비용 상승에 대한 걱정을 반영한다"라고 지적했다.
PMI는 경기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구매 및 공급 담당 임원들을 상대로 신규주문, 재고, 고용 여건 등을 설문한 결과를 지수화한 경기지표다.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최신행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구독신청
703-281-9660
MEDIA CENTRAL NEWS

세금 줄이고, 노후 준비까지!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오너분들을 위한 똑똑한 절세”
지금은 절세가 곧 생존이고 경쟁력입니다.
[은퇴 후 소득에 대한 미리하는 세금플랜, Mega Backdoor 등 Roth Conversion 을 이용한 절세 전략!]
왜 이 플랜이 필요할까요?
개인 401(K) 보다 훨씬 높은 납입 한도!
사업주에게 조기 은퇴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세금 공제와 은퇴 준비를 한 번에!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직원이 없는 부부 자영업자: Solo 401(K)로 세금 공제 + 은퇴 플랜을 동시에!
고소득 전문직 오너 (직원 10 ~ 15명 이하): 큰 세금 혜택 + 은퇴 플랜 마련!

UNIFinancial
worldwide Marketing

로리문 Cell. 703.895.7648
Office. 703-865-8788
send2lorimoon@gmail.com
재정 플랜 전문가 & 연방 세무사

페어팩스 VA 3701 Pender Dr. Suite 160 Fairfax, VA 22030
리치몬드 VA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엘라콧 시티 MD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페이트빌 NC 5085 Morganton Road, Suite 300 Fayetteville, NC 28314
보스톤 MA 100 Summit Drive, Burlington, MA 01803

페어팩스 교육위원회, 학사일정 정책 승인

2026-27년도 시행 수업 보강에 초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학사일정 수립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

지난 11일 채택된 정책은 교육위원회가 “가능한 한 최대한 정규 수업 주간 형태로 학업 및 교육의 연속성을 우선 시하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사일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정책은 학부모들이 학교 일정이 너무 파편화되어

휴일이 너무 많고 주5일 수업이 부족하여 보육 부담이 커지고 여름 방학이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불만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새로운 정책은 교육위원회가 지난 4월 채택한 2026-27년도 학사일정에 따른 것으로, 현종일 공휴일을 폐지하고 조기 하교일 수를 줄인 내용이다.

*개학: 주법에 따라 개학일은 노동절 14일(2주) 이전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 노동절과 그 전 금요일은 휴교일이다.

*학기 마지막 날: 학년도는 준틴스데이(6월19일) 이전에 종료된다.

*방학: 겨울 방학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 날을 포함해 2주간이다. 봄 방학은 1주간이며, 주변 교육청의 방학 일정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조정된다.

*연방 공휴일: 재향군인의 날을 제외한 모든 연방 공휴일은 학생 휴일로 지정된다. 추수감사절 전 수요일과 후 금요일은 학생 및 교직원 휴일로 지정된다.

*종교 휴일: 크리스마스, 디왈리, 이드 알 아드하, 이드 알 피트로, 로쉬 하사나, 욘 키푸르 등 종교 휴일에는 학교가 휴교한다.

*기념일: 교육감은 관련 직원과 협의하여 특정 문화 및 종교적 공휴일을 학교 달력에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

*교사 연수일: 가능한 한 교사 연수일 및 전문성 개발 시간은 학생 방학 주간에 실시될 예정이다.

*선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은 정기적으로 예정된 교육구 전체 예비선거 및 본선거가 있는 날에는 학생들의 등교를 중단해야 한다.

*특별 선거: 교육감은 상당수의 학교에서 특별 선거가 실시되는 날에는 학

교를 휴교해야 한다.

*조기 하교일: 학년도당 최대 4일의 전교생 대상 조기 하교일이 있으며, 각 학기 말에 실시된다. 이러한 조기 하교일은 3년 전에 발행되는 학사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긴급 휴교: 교육감은 악천후로 인해 교직원 및 지역 공공 안전 담당자와 협의하여 긴급 휴교를 선언할 수 있다.

*학사일정 채택: 교육위원회는 주법에서 정한 모든 수업 시간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학사일정을 공개적으로 채택해야 한다. 김성한 기자

페어팩스 경찰, 여름 휴가철 교통단속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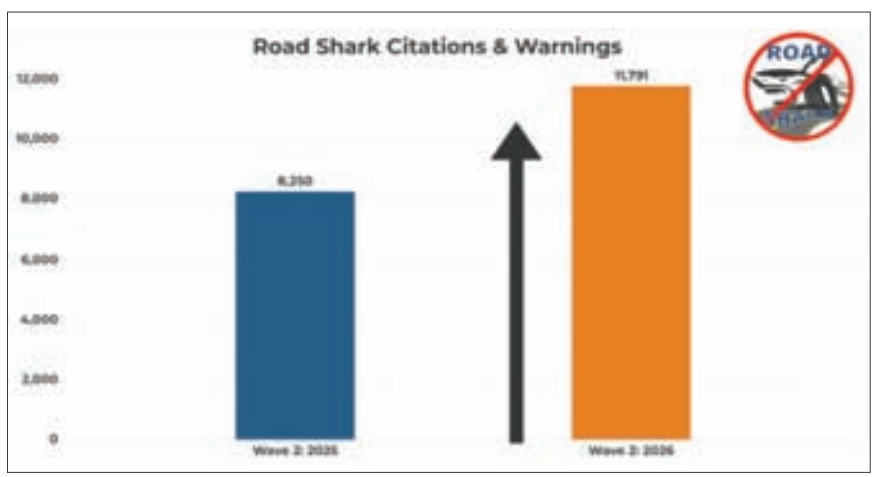
이달 교통위반 1만건 적발 '로드 샤크' 3차 실시 계획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이달 초 1만 건이 넘는 교통 위반 딱지를 발부한 후, 올여름 후반에 난폭 운전, 과속, 부주의 운전, 음주운전 등을 단속하는 교통 안전 캠페인을 재개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페어팩스 경찰이 버지니아 주 경찰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로드 샤크(Road Shark)' 계획의 세 번째 단계가 오는 8월 10일 시작될 예정이다.

매년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교통 단속 캠페인 첫 번째 단계는 4월 말에 두 번째 단계는 6월 초에 실시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1만3520건의 위반 딱지와 경고장이 발부되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두 번째 단계에서 경찰은 5740건의 위반 딱지를 발부하고, 6051건의 경고를 내렸다. 이는 전년도 두 번째 단계에서 발부된



두 번째 조사 결과와 이전 조사 결과 비교.

[페어팩스 경찰국 제공]

8250건의 위반 딱지 및 경고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특히 이틀 동안에만 다섯 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 중 네 건은 보행자 사망 사고였고, 나머지 한 건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였다. 모든 사고는 예방 가능한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었다.

이와 관련 페어팩스 경찰은 “사고에 연루된 보행자나 운전자 중 일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고 밝히며, 이러한 교통 사고에는 음주, 과속, 또는 다른 유형의 난폭 운전이 원인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한 사고들로 인해 올여름 페어팩스 카운티 도로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망자 수는 10명으로 늘어났다. 김성한 기자

워싱턴목회연구원 정기 6월 모임가져

워싱턴목회연구원(원장 윤구현 목사)은 지난 15일 메시아장로교회(담임 한세영 목사)에서 6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회원 25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모임에서 목회자들은 예배와 주제발표 그리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김찬영 목사(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기도예이정범 목사(서기)가, 그리고 설교에는 한세영 목사가 고린도후서:1:3-7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목회’라는 제목하에 ‘이민목회자의 고통과 연약함을 함께 나누면서 더욱 강한 목회자가 될 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정태 목사(목회연구원발기인)의 축도 후 이정범 목사가 ‘메시아로 오

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17:1-8을 주석 강해했다. 이정범 목사는 강해를 통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고 부활의 영광으로 승천할 것이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기에 그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목회연구원 25명의 회원으로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 목회와 신학을 연구하는 단체이며, 올해 12월 총회에서 5명의 신규 회원의 가입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문의: 총무 김찬영 목사 571-329-1801

홍알벗 기자



워싱턴목회연구원은 6월 정기모임을 갖고 올해 말까지 신규 회원의 가입신청을 받기로 했다.

황해도민회 총회 및 이산가족 기억의 날 열려

워싱턴지구 황해도민회와 사단법인 일천만 이산가족 위원회는 오는 6월 27일 (토) 오전 11시30분 한인 커뮤니티센터 1층 대강당에서, 황해도민회 창립 제36주년 기념 총회와 제4회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기억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관계자는 "황해도민회와 이산

가족 위원회 회원은 태어난 고향을 북녘 땅에 두고 지난 76년 세월동안 고향을 그리며 살아 온 실형님들이고 이산가족들"이라며, "언젠가는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강인한 인내와 희망으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문의:703-216-5450, 703-867-3809

홍알벗 기자

시민권 신청 수수료 760불에서 1330불로 인상

시민권 신청 수수료 570불 인상
온라인 신청 710불→1280불로
60일간 의견 수렴 거쳐 최종 확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취득 신청 수수료를 또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면(우편) 서류 기준으로 현재보다 570달러나 높은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지난 2024년 4월 서면 접수의 경우 725달러에서 760

달러로 인상된 바있다. 22일 미 이민국(USCIS)이 공개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N-400) 서면 접수 수수료는 현행 760달러에서 무려 1330달러로, 온라인 신청은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또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뒤 재심을 요청하는 서류(N-336)의 수수료도 서면 신청시 기존 830달러에서 645달러나 오른 147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780달러에서 1425달러로 인상된다. 김주환 기자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해 온 감면 수수료 제도와 수수료 면제 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군복무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는 유지된다.

UCCIS를 관장하는 국토안보부는 이민국 운영 재원의 대부분이 신청 수수료에서 충당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아직 규정 개정안 단계로, 향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한 심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모시

맛있는 음식만 전하는 센터빌 빛고을에서
여름 런치스페셜을 선보입니다.
(월요일 ~ 금요일)

센터빌 빛고을 순두부

갈비 돌솔 비빔밥
\$13.99

비빔 모밀국수
\$14.99

물 모밀국수
\$13.99

Lunch Specials

갈비 2대 + 모밀국수
Galbi (2pcs) + Cold Buckwheat Noodles
\$19.99

New Menu

곰창순두부

703-825-1550

6035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강한 폭풍에 2만5000가구 정전

버지니아 페어팩스
나무·전선도 쓰러져

한주가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인 22일 버지니아를 덮친 폭풍으로 곳곳에서 정전과 교통 단절,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한인이 밀집으로 거주하고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2만5000가구가 정전되어 주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

전력 업체 '도미니언'에 따르면, 센터빌을 비롯해 맥클린, 던로링, 버크 지역이 정전 발생 건수가 가장 높았다.

특히 버크 지역의 피해가 심했는데, 나무와 전선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주택 지붕이 파손되었다는 보고도 여러 건 있었다.

기상 예보관들은 광범위한 피해가 토네이도가 아닌 강한 직선형 바람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피해 규모는 토네이도가 일으킨 피해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페어팩스 카운티를 벗어나 버지니아



강한 폭풍으로 인해 정전 및 나무와 전선이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페어팩스 경찰국 제공]

전역으로 확대하면 약 5만 가구에 달하는 고객이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레이건 국립공항과 덜레스 국제공항 모두 폭풍으로 인해 한때 운항이 중단되었으며, 항공편 지연이 속출해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정전과 항공편 지연에도 불구하고,

이번 폭풍은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는 도움이 되었는데, 이는 현재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버지니아 지역에 상당한 양의 비가 내렸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연방기상청(NWS)은 "강한 폭풍우를 동반한 비구름이 동북부 산악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최근 보기 힘들었던 거센 초여름폭풍"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한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내셔널몰 여성 역사 프로젝트 추진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미국 여성들의 역사와 업적을 조명하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방문객들이 역사적 인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여성 참정권 운동가와 과학자, 정치인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는 여성의 역할을 보다 폭넓게 알리

기 위해 기획됐다. 역사학자와 기술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 관광 당국은 새로운 교육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 현장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미국 여성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는 올해 말 일부 구간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정식 공개는 2027년 초로 예상된다.

북버지니아 데이터센터 세금 논쟁 지속

북버지니아 데이터센터 산업을 둘러싼 세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버지니아 의회는 관련 세제 개편안을 내년 회기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데이터센터는 버지니아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주민들은 전력 사용 증가와 환경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세금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세금 인상이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에너지 사용세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수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릴랜드 선거에 대규모 정치자금 유입

메릴랜드 연방하원의원 경선에 역대급 정치자금이 몰리고 있다. 특히 제5선거구와 제6선거구 선거에 수천만불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슈퍼PAC과 각종 정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광고전을 펼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TV 광고와 온라인 홍보에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전국적인 관심

이 자금 유입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후보 간 경쟁도 점차 격화되고 있다. 선거 감시단체들은 정치자금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 결과가 향후 민주당 내부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는 메릴랜드 역사상 가장 비싼 예비선거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스테니 호이어 후임 선출 경쟁 본격화

메릴랜드주 제5선거구에서 스테니 호이어 연방하원의원의 후임을 뽑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호이어 의원은 수십 년간 의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중진 정치인이다.

그의 은퇴 선언 이후 수많은 후보

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재 20명이 넘는 후보들이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메릴랜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홍알벗 기자

푸드스탬프로 사탕·탄산음료 구매 가능

저소득층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가 식품권으로 사탕과 탄산음료 등을 구매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에미미 버먼 잭슨 판사는 22일 연방 농무부가 주정부의 식품 구매 제한 면제 요청을 승인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잭슨 판사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식량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 다섯 명의 원고 편에 섰다. 연방 농무부는 23개 주에서 '식품 제한' 면제를 승인하여 해당 주들이 SNAP 수혜자들이 식품권을 사용하여 탄산음료나 사탕과 같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

장관관은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Make America Healthy Again, MAHA)" 운동의 일환으로 해당 면제 조치를 지지해왔다.

SNAP은 저소득층 가구에 매일 식품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 프로그램이다. 연방 농무부(USDA)가 주 정부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SNAP(식품 지원 프로그램)은 워싱턴을 비롯해 전국에 걸쳐 4200만 명의 저소득층에게 매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웨스트 버지니아와 테네시 주 등에 거주하는 SNAP 수혜자 5명이 지난 3월 제기했는데, 이들은 구매 제한이 불법이며, 계산 과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당뇨나 알레르기 등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식품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잭슨 판사는 68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농무부가 SNAP 프로그램의 행정적, 물류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 목적의 시범사업은 승인할 수 있지만, 의회가 정한 '식품'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방식의 면제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잭슨 판사는 이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SNAP 가구의 건강한 선택을 장려하려는 목적을 가질 수 있고, 이를 위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과 자체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연방 농무부는 해당 정책을 옹호하며 특정 식품에 대한 SNAP 혜택 사용 제한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한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Always With You!
703-507-2492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방앗간 / 반찬 / 잔치음식 전문점
Oh! Market 낙원떡집
케이터링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oming Soon
PARADISE CATERING
703-505-7766
7412 Stream Walk Ln. Manassas, VA 20109 (Oh! Market 안에 위치)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21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량금(미약소 물)
웨이민노래방

40
300m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운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펄펄 끓는 유럽...이탈리아 15개 도시에 최고 폭염 경보

프랑스에선 약 20명 익사 연일 40도 넘어 최고 기온 경신

폭염이 유럽 대부분 지역을 덮치면서 이탈리아에서도 최고 등급의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지역이 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보건부는 이날 로마, 밀라노 등을 포함한 전국 15개 도시에 폭염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폭염 적색경보는 가장 높은 단계의 경계경보로 더위가 어린이·노약자는 물론 건강한 성인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될 때 발령된다. 보건당국은 시민들에게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현지 안사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적색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볼로냐, 볼차노, 브레시아, 피렌체, 프로시노네, 밀라노, 페루자, 페스카라, 리에티, 로마, 토리노, 베로나, 베네치아, 비테르보, 안코나 등이다. 오는 24일에는 라티나에도 적색경보가 내려질 예정이어서 적색경보 발령 도시는 총 16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서는 최근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열차 운행이 취소되고 학교 수업도 차질을 빚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연이은 폭염에 지난 주말부터 이날 현재까지 약 20명이 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리아 페라리 프랑스 스포츠부장



22일 오후 3시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근처의 약국 간판에 섭씨 41도가 찍혀 있다. [연합뉴스]

관은 이날 아침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에서 이 같은 인명 피해 규모를 밝히며 “폭염 기간에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물

놀이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프랑스는 지난주부터 이어진 폭염

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22일 곳곳에서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했다. 전날 파리에서도 6월 최고 기온 기록이 경신된 가운데 도심 한 관측소에선 섭씨 38.4도가 기록됐다.

이밖에 남서부 보르도는 41.9도, 인근 생트는 42도, 중부 샤토메이양에선 43.3도를 찍었다.

이 기록은 23일 다시 경신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께 보르도 기온은 44도, 렌은 4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했다.

이날 프랑스 본토 96개 데파르트망(광역 자치권) 중 절반 이상인 54곳에는 폭염 적색경보가, 35곳에는 주황색 경보가 발령되며 인구의 90% 이상이 폭염 영향권에 들었다.

중국, 일본응원단 욱일기 사용에 “군국주의 유산 허용 안돼”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본 응원단이 욱일기를 펼쳐 논란이 이는 가운데 중국군 매체가 “축구장에는 군국주의 유산이 설 자리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훙정핑(鈞正平)’은 전날 ‘월드컵 경기장은 군국주의의 혼을 부르는 곳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군국주의의 흔적이 남은 욱일기가 일본 대표팀 경기장 안팎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훙정핑은 욱일기를 ‘침략의 피로 얼룩진 전범기’라며 국제축구연맹(FIFA)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상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 팬들이 욱일기를 응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침략 역사를 외면



일본과 튀니지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중계 화면 [서경덕 교수 제공]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일본 사회의 군국주의 역사에 대한 모호한 태도와 방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규칙을 위반하고 역사를 모독하는 부적절한 응원 행위는 단호

히 저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의 한 스포츠 블로거는 일본 팬들이 욱일기를 들고 응원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아시아를 분노하게 하고 역사적 상처를 다시 들춰냈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1일(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일본과 튀니지의 경기 중 관중석에서 욱일기가 펼쳐진 장면이 경기 중계 화면과 전광판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욕일기는 과거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당시 사용한 깃발로,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경기장 내 욱일기 응원 장면과 관련해 국제축구연맹(FIFA)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방, 테헤란 공관 재개 이탈리아 이어 덴마크도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이란 주재 대사관을 속속 다시 열고 있다.

덴마크 외교부는 23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으로 인해 폐쇄했던 테헤란 주재 대사관 운영을 3개월여 만에 재개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10일 테헤란 주재 대사관에서 외교관들을 철수시킨 바 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이란의 안보 상황 개선을 고려해 테헤란에 있는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주이란 덴마크 대사가 지난 19일을 기해 테헤란 공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탈리아 역시 지난 19일 테헤란 주재 대사관 운영을 3개월여 만에 재개했다.

오키나와 찾은 다카이치 “평화 지키기 위해 자주 방위 강화할것”

81년 전 ‘오키나와 전투’ 희생자 추모행사 참석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23일 오키나와현을 찾아 평화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위력을 자주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HK와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키나와현 이토만시에서 열린 ‘위령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일본)는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맹세 아래 평화를 중시하는 국가로서 나아가 왔다”며 “앞으로도 일본인 누구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거듭해 나갈 것을 고인들께 맹세 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연설 도중 ‘헌법 9조를 지켜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다카이치 총리는 “연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는 못 들었지만 ‘헌법을 지키라’는 것이라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전쟁을 멈추라’는 뜻이라면 평화 국가로서의 발걸음을 전후에 계속 이어온 것은 일본의 자랑”이라며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위력을 자주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쟁 포기와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긴 일본 헌법 9조는 평화

헌법의 핵심 조항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소속된 집권 자민당은 이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려는 등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위령의 날은 81년 전 오키나와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 20만여 명을 추모하기 위해 정해졌다.

오키나와 전투는 태평양전쟁 막바지인 1945년 3월 말부터 6월 23일까지 오키나와에 상륙한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벌어졌다. 당시 일본군은 오키나와 주민을 사실상 방패막이로 삼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내 미군 기지가 집중적으로 배치된 오키나와현의 부담을 언급하며 이를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오키나와 주민 여러분은 전후 8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군기지의 집중으로 인한 큰 부담을 지고 있다”며 “주일 미군 시설·구역의 정리, 통합, 축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카이치 테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오키나와에는 지금도 광대한 미군 기지가 존재하며, 과중한 기지 부담과 기지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로 인해 안전한 삶이 위협받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s)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진실 • 정의 • 자유



2026 미주 한인연합 대국민시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한 연대



06.27.2026 (토)

오전 10시

미국 국회의사당 뒤 (대법원 앞) Area 9

대상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한인과 미국인
(자녀들과 함께)

셔틀 대형버스 안내

버지니아 지역:
애난데일 K마트 주차장
오전 9시

메릴랜드 지역:
엘리콧시티 신촌식당 앞
오전 8시 30분

준비물

- 태극기
- 성조기
- 손피켓 (각자 자유롭게 종이에 적어서)
- 돛자리
- 방석

협력

- 미주 한인연합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 AKUS 한미연합회 본부
-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문의

571-535-8220

koreafreedom2025@gmail.com

주최

KAI

Korea Alliance Initiative



한국 청년들의 진실 규명 운동에
미주 한인들이 함께합니다

AI 전력수요 대응... 원전 건설에 175억불 저금리 대출

2035년부터 원자로 10기 가동 목표...에너지장관 "원전 르네상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부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미 에너지부는 전력 회사들이 대형 원자로 건설에 필요한 장비를 조기에 확보하고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총 175억달러(약 27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 보도했다.

이번 지원은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주력 대형 원자로 모델인 'AP1000' 10기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에너지부는 원자로 2기를 짓는 5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 건

설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 이르면 2035년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7개 전력회사가 이번 대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공식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차세대 미국 원전 르네상스"를 촉발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임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라이트 장관은 원자로 건설 기간을 단축해 비용을 낮추고,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의제 이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과거 미 원전 건설은 극심한 비용 초과로 난항을 겪어왔다.

조지아주 보글 원전에 투입된



조지아주 보글 원전

[AP=연합뉴스]

AP1000 2기 구조물은 당초 140억달러로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 300억달러를 넘어섰고, 완공 역시 계획보다 7년가량 지연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비슷한 프로젝트 역시 비용이 90억달러를 넘어져서 2017년 중단된 바 있다.

미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

지 않기 위해 표준화된 설계와 고정 가격 계약 등으로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미국에선 AI 열기로 데이터 센터가 급증하면서 전력 부족 문제로 원전 수요가 늘고 있다.

AP1000 원자로의 약 1천100메가와트(MW)의 전력을 생산해 대형 AI 데이터 센터나 중소 도시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행정명령에서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착공을 포함한 원전 산업 활성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 정부는 지난해 웨스팅하우스와 800억달러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이번 대출은 이와 별개지만 상호보완 형태로 운영된다.

보수 간판논객 칼슨 공화당 탈당 선언

"미국보다 이스라엘 이익 중시...유권자 배신" 주장

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미국의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이 공화당이 미국보다 이스라엘의 안보 이익을 중시한다면서 탈당을 선언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세력인 이른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분열이 가속화하는 기류다.

22일 미국의 온라인매체 약시오스에 따르면 칼슨은 최근 자신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공화당이 더 이상 자신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공화당을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35년간 공화당의 열성 지지자였다고 밝힌 칼슨은 "내가 나가면 많은 사람이 나갈 것"이면서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겠다. 공화당을 지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탈당 이유로는 공화당이 미국의 안



보수논객 터커 칼슨

[AP=연합뉴스]

보보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우선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을 "배신했다"고 했다.

그는 "그 당은 자국민의 이익보다 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데, 미국에 충성하지 않는 정당을 어떻게 지지하겠나"라면서 "그런 이들에게 표를 줄 수

없고,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한 보수성향과 반(反)유대주의 성향을 드러내 온 칼슨은 폭스뉴스 앵커 출신의 방송인으로, 마가 진영의 핵심 인물로서로 꼽힌다. 그는 지난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당선을 도운 측근이었으나 이란 공습과 전쟁 과정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사실상 갈라섰다.

지난 4월 말에도 칼슨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전쟁은 없다'는 대선 공약을 어기고 네오콘(신보수주의)과 이스라엘의 영향력에 굴복했다면서 "배신감"을 토로한 바 있다.

칼슨의 공화당 탈당 선언에 대해 약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축한 마가 연합 내부에 균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면서 "그의 이란 전쟁과 경제 운용 방식은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계속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미국에 원전 1기급 화력발전소 건설

JERA, 4.7조원 투자... "일본 정부 대미투자자와 별개"

일본 최대 발전사인 JERA가 미국에 원자력발전소 1기 발전 규모에 해당하는 대형 가스 화력 발전소를 지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지(닛케이)이 23일 전했다.

JERA는 미국 중부에 데이터센터와 연계된 1GW(기가와트)급 가스 화력 발전소를 2028년 가동 목표로 지을 예정이며 투자액은 5천억엔(약 4조7천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일본 발전사가 미국에 데이터센터 전용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해당 데이터센터는 대형 언어모델(LLM) 학습용으로 투자액이 수십조원 규모에 달하는, 미국에서도 큰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JERA의 이번 계획은 일본과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2차 프로젝트 내용 중의 가스 화력 발전소 건설 계획과는 별도로 닛케이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최대 73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2차 프로젝트를 통해 펜실베이니아주와 텍사스주에 각각 170억 달러(약 25조원), 160억 달러(약 24조원) 규모의 가스 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와 미국의 국가 프로젝트급 초대형 데이터센터 추진 계획 '스타게이트' 사업에서 협력하는 소프트뱅크 그룹도 텍사스주에 가스 화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갖고 있다.

JERA는 도쿄전력홀딩스와 중부 전력의 각자의 화력발전 부문을 통합, 2015년 설립한 회사로 일본 내에서 화력발전소 26곳을 운영하고 있다.

손정의,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센터 '장점없다' 일축

손정의(일본이름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우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은 장점없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손 회장은 23일 열린 소프트뱅크그룹의 통신 부문 연례 주주총회에서 우주 AI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히는 전력 비용

감축은 칩과 같은 하드웨어와 비교하면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의 작은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전력 비용을 절감하는 대가로 모든 장비를 우주로 보내는 데 더 큰 비용이 들고, 유지 보수 문제와 통신 지연 등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주주 한 명이 소프트뱅크가 머스크의 우주 AI 데이터센터 구축

과 비슷한 것을 준비하는지를 묻는 말에 "AI 경쟁에서는 향후 10년째 일어날 지도 모를 일보다 향후 몇 년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머스크를 "팔목할만한 변화의 주도자"라고 칭송하면서도 소프트뱅크는 지상에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센터 용량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왼쪽)과 샘 올트먼 오픈AI CEO

[EPA 연합뉴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격정도 많고, 금근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문의전화 703.658.1717 / www.hanstravel.com / hanstravelusa@gmail.com / 버지니아 본사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HANS TRAVEL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TALK

Instagram

Facebook

한스관광 hanstravelusa Hans Travel

친구 추가! 실시간 상담 가능

버스가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KOREAN AIR
AIR PREMIA
DELTA
TURKISH AIRLINES

독립기념일 특선

스모키마운틴

딕시스탬피드 디너쇼/루비폴/
Rock City/스모키마운틴
2박3일 7/3(금)-7/5(일)
\$899

한스 대형버스

캐나다 나이아가라 천섬, 왓킨스글렌

2박3일 7/3(금)-7/5(일)
\$790

한스 대형버스

뉴욕 브로드웨이의 대표 흥행작!

알라딘

마법같은 순간!
당일투어 8월15일(토)
\$289

한스 대형버스

"가객은 합리적으로, 여행의 동격은 논계"

2026 고품격 한국여행

각 도시 최고의 호텔과 맞춤형
제주:신라호텔 / 부산:그랜드 조선호텔

노블 전국일주 9박10일(제주포함)
\$2,370 항공불포함

노블 내륙일주 6박7일
\$1,730 항공불포함

K-NOBLE 고국내륙 영어가이드 투어
8박9일 **\$2,550** 항공불포함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북유럽(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발틱(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13박14일 7/16(목)-7/29(수)
\$6,695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돌로미테

8박9일 9/17(목)-9/25(금)
\$3,590 항공불포함 인솔자:세라 정
유럽의 숨은 보석

오스트리아, 체코 클래식 감성여행

10박11일 10/7(수)-10/17(토)
\$6,595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특별 기획

스페인 & 포르투갈

11박12일 10/12(월)-10/23(금)
\$3,790 항공불포함 인솔자:애나 김

눈부신 지중해의 햇살을 따라가는 여행

알프스 가을 파노라마 기차여행

9박10일 10/18(일)-10/27(화)
\$5,500 항공불포함 인솔자:재키 조

황금빛 알프스를 달리는 특별한 여정, 가을 스위스 기차여행

그리스 & 튀르키예

1. 그리스 & 튀르키예 성지순례
12박13일 10/12(월)-10/24(토)
\$3,4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2. 그리스 & 튀르키예 여행
12박13일 10/26(월)-11/7(토)
\$3,690 항공불포함 인솔자:조앤 한

AIR PREMIA GOLDEN AGE PROMOTION

한국 왕복 항공권 15~20%할인
대상 : 만 55세 이상 / 발급 기한 : 7월31일

한스 2026 여행 스케줄

항공 불포함 인솔자

| | |
|--|-------------|
| 07/16(목)-07/29(수)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13박14일 마감입박! \$6,695 | 재키 조 |
| 07/16(목)-07/25(토) 북유럽 4개국 9박10일 마감입박! \$5,240(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 재키 조 |
| 07/23(목)-07/29(수) 헬싱키 & 발틱 3개국 6박7일 마감입박! \$2,590(헬싱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 재키 조 |
| 07/27(월)-08/01(토) 캐나다 록키 | (마감) |
| 08/06(목)-08/12(수) 알래스카 | (마감) |
| 08/21(금)-08/28(금) 아이슬란드 7박8일 마감입박! \$6,995 | 재키 조 |
| 08/15(토)-08/22(토) 그린랜드 7박8일 | (마감) |
| 09/17(목)-09/25(일) 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돌로미테 8박9일 \$3,590 | 세라 정 |
| 09/19(토)-09/27(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6,590 | 재키 조 |
| 09/27(일)-10/10(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3개 | (마감) |
| 10/07(수)-10/17(토) 오스트리아, 체코-클래식 감성여행 10박11일 \$6,595 | NEW스페셜 재키 조 |

| | |
|--|-----------|
| 10/8(목)-10/17(토)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 | (마감) |
| 10/12(월)-10/23(금) 포르투갈 & 스페인 11박12일 \$3,790 | 애나 김 |
| 10/12(월)-10/24(토) 그리스 & 튀르키예 성지순례 12박13일 \$3,490 | 조앤 한 |
| 10/18(일)-10/27(화) 알프스 가을 파노라마 기차여행 황금빛 알프스를 달리는 특별한 여정, 가을 스위스 기차 여행 9박10일 \$5,500 | 재키 조 |
| 10/26(월)-11/07(토) 그리스 & 튀르키예 12박13일 \$3,690 | 조앤 한 |
| 10/29(목)-11/07(토) 튀르키예 9박10일 \$2,980 | 재키 조 |
| 10/31(토)-11/07(토) 일본 동경에서 오사카까지 7박8일 \$3,950 | 재키 조 |
| 11/06(금)- 1/19(목) 요르단 & 이집트 13박14일 \$5,890 | 데이빗 한 |
| 11/10(화)-11/19(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4,190 | 재키 조 |
| 11/09(월)-11/21(토) 네팔 & 부탄 왕국 12박13일 \$5,690 | 조앤 한 |
| 11/25(수)-11/29(일) 코스타리카 4박5일 \$1,290 | 재키 조 |
| 12/05(토)-12/18(금) 하와이 뉴질랜드 시드니 여행 13박14일 \$6,790 | 재키 조 |
| 2027년 1/18(월)-1/23(토) 코스타리카 골프 투어 5박6일 \$2,490 | 항공포함 세라 정 |

특별기획

| | |
|--|-------------------------------|
| 캐나다 록키 5박6일 \$1,050부터 | 수시출발 항공불포함 더위 탈출~ |
| 알래스카 5박7일 \$1,650부터 | 일요일 출발 항공불포함 더위 탈출~ |
| 러시모어, 크레이지호스 록키산맥 국립공원/러시모어/ 베드랜드 국립공원/크레이지 호스 9/4(금) \$1,040 | 3박4일 항공불포함 |
| 엘로스톤 3박4일 | 월/금 출발 \$950 항공불포함 |
| 서부4대캐년 4박5일 | 일요일 출발 \$990 항공불포함 |
| 미서부 일주 7박8일 | 일요일 출발 \$1,540 항공불포함 |

특별기획

| | |
|--|-------------------------------|
| 3명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 \$100 |
| 당일투어 루레이동굴 | \$125 |
|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 하세요! | |
| 뉴욕 1박2일 | \$399 |
|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 2박3일 \$650 7/2(목), 7/20(월) |
|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 \$1,350 |
|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퀘벡-우드버리-울렛-뉴욕 나이아가라 유람선, 원월드 전망대,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포함 | |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권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삼성·SK, 호남·충청 반도체 투자규모 수백조원 거론

이달말 민관회의서 발표 예정...전공정·후공정 공장 건설 거론
지역균형 발전 전략맞물려...이 대통령, 이재용·최태원과도 회동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 [000660]가 광주·전남 등 호남권과 충청권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 규모로 수백조원대가 거론되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달 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토 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자 세부안을 조율 중이다.

양사는 호남과 충청 지역 내 지어질 반도체 클러스터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전공정)과 패키징 공장(후공정)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정은 메모리 반도체 제조 과정

에서 웨이퍼 위에 회로를 형성해 메모리 셀과 소자를 구현하는 단계. 후공정은 완성된 칩을 절단·패키징·검증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완성하는 단계다.

당초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 지역의 전력·용수 등 인프라 여건을 고려할 때 후공정 중심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역 내 반도체 산업 집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핵심 제조공정인 전공정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투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반도체 팹(공장) 1기 건설 비용이 최소 6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번 투자 규모는 300조~400조원에 이를



SK하이닉스·삼성전자

[촬영 홍기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투자 방안 및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할 예정이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지난 19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충남

아산(다음 달 2일), 광주(이달 30일)를 찾아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직접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번 논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현재 ‘5극3특’(5개 초광역

권, 3개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전략과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에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방안과 인허가 특례 등 내용이 담긴 것도 이들 기업이 지방 투자를 고려할 만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과 국가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시설이 호남 등 남부권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 간 투자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특위, 내달 1일 중앙선관위 30명 등 증인 70명 부른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달 1일 열린 제2차 기관 보고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70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을 부르기로 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기관별로 보면, 특위는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규명’을 이유로 윤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경찰의 시민 폭행 등 의혹, 투표함 이송 및 유통공공원 시위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이관형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경찰청 관계자 3인, 서울경찰청 관계자 2인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날 1차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채택된 위찰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노태약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 30명, 서울시선



발언하는 노태약 전 선관위원장

[연합뉴스]

관위 관계자 8인, 송과구선관위 관계자 12인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동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5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조특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노태약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 4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공식 의결.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 직무대행 및 비상임 중앙선관위원 5명과 오민석 전 서울선관위원장(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불러 당시 선거관리 상황 등을 질의했다.

국조특위가 이날 진행한 중앙선관위

대상 1차 기관 보고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두 차례의 정회를 거쳐 밤 11시 30분에 종료됐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43명의 증인 가운데 16명이 오전 회의에 무더기로 불출석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위찰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조치를 취해 오후에 주요 인사들이 회의장에 나왔다.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5명과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민소영 전 송과구선관위원장(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및 송과구 선관위원 등이 뒤늦게 출석한 증인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른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와 관리 체계, 노태약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외유성 해외 출장을 비롯한 방만 경영과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위찰환 직무대

행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으며, 위 직무대행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정정으로 흐를 표현은 사용을 자제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답변에서 노태약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뒤늦게 증인으로 나온 5명의 비상임 선관위원들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노 전 선관위원장은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밝혔고, 위 직무대행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5명의 비상임 선관위원들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만하다”,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수뇌부 12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한 데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살찐 거 봐” 여직원 모욕 혐의 창원해경 징계위원 2명 해촉

직원 징계에 관여할 수 있는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외부 위원들이 해경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경이 이들을 위원직에서

해촉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해양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2명을 모욕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들 위원 2명이 지난 1월 창원해경 소속 한 여성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거나 “살찐 거 봐”, “소주 한 잔 안 주느냐”, “내일 모레면 할머니”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

이 담겼다. 전직 해경 간부인 이들은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 소속인 이들 위원 2명은 창원해경 내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창원해경 징계위원회는 총 24명으로, 이 가운데 13명이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외부에서 위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에 불거지자 해경은 이들 2명을 창원해경 징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했다.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추방재판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행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 ▶ NVAR Top Producer
- ▶ Zillow Premier Agent
-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 비엔나 콘도 | 스프링필드 타운홈 | 센터빌 타운홈 | 클럽턴 싱글홈 |
|--|--|---|--|
|  SOLD |  SOLD |  UNDER CONTRACT |  UNDER CONTRACT |
| \$339,000 방1 / 화1+ Den, 비엔나 중심 위치 전체마루, 넓은 데크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 \$645,000 방3 / 화2.55 / 차고1 /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한 로케이션 | \$595,000 방3 / 화3.5 / 2 Assigned. 지붕, 부엌(2024), P Bath (2026), HVAC 등등 | \$1,120,000 방 4 / 화 3.5. 집 전체 수리 많이한 집 |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 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단일종목 레버리지 25% 급락...당국, 안전장치 마련 착수

예탁금 상향·수수료 인상·추가상장 제한 등 다양한 방안 거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도 높게 우려를 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투자자 안전장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코스피 급락 속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000660] 단일종목 레버리지 종목들도 평균 약 25% 하락하며 투자자 충격 우려가 일부 현실화한 모습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과한 쏠림 현상과 변동성 관련 투자자 안전장치 모색에 들어갔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에 관련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증시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를 발굴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기본예탁금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현재는 개

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1천만 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이보다 액수를 올려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이다.

아울러 투자자 교육 강화도 진입 장벽을 높이는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된다. 지금은 해당 상품에 투자하려면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에서 일반교육과 심화교육을 각각 1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매력도를 낮추는 차원으로 관련 상품의 수수료 인상을 증권투자업계에 주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도 추가적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상장을 당분간 제한하는 방안 역시 언급된다. 다만 주요 대형 자산운용사는 이미 관련 상품을 일찌감치 출시한 상태라 후발주자는 추가 상품을 상장하더라도 어차피 주목도가 높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찬진 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놓고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도입을) 막았어야 했다”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 “투자자 대부분이 중산층과 서민이 많은데 증시 변동성이 오면 거액에 큰 충격이 될 수 있어 별도의 안전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우려는 이날 일부 현실화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9.99%) 내린 8,203.84로 거래를 마쳐 8,200선을 간신히 지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12.47% 내린 255만5천원에, 삼성전자[005930]도 전장보다 12.31%

내린 3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이들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하락률은 상품구조에 따라 곱절로 벌어졌다. 상장된 7개의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평균 하락률은 25.6%,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7개는 24.6%로 집계됐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정책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메시지가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지난해 연말 고환율 상태가 이어지자 당시 서학개미의 해외증시 투자수요를 국내증시로 유도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당국은 투자유의를 안내하는 데 방점을 두고, 단기 투자용으로 제한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다가 이 원장이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높은 회전율을 지적하며 “증권사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자 업계에서는 당황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차익실현? 조정 본격화?...10% 폭락에 ‘검은 화요일’ 코스피

코스피 변동성지수도 ‘경중’ 변동성 확대에도 롤러코스터

극단적인 반도체 대항주 쏠림으로 우려를 자아내던 코스피가 23일 결국 급격한 조정에 직면했다.

9,000선을 넘어 ‘1만피’를 바라보던 지수는 단숨에 8,200선까지 밀리면서 하루 기준으로 역대급 낙폭을 기록했다. ‘9천피’ 돌파 3거래일만이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0.71포인트(9.99%) 폭락한 8,203.84로 장을 마쳤다.

이런 전쟁 발발 직후인 올해 3월 4일(698.37포인트·12.06%)에 이어 올해들어 두번째로 큰 하락률이다. 전일 종가 대비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 (EPA 연합뉴스) 0.34% 내린 9,083.54로 출발한 지수는 종일 우하향 흐름을 이어가며 낙폭을 키웠다. 이에 거래소는 오전 11시 40분께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매도

사이드카)를 발동,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 효력이 정지됐고, 오후 2시 33분에는 서킷브레이크까지 발동해 20분간 매매거래를 중단했으나 하락 추세를 멈추지는 못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조1천391억원과 4조5천129억원을 순매도하며 ‘매물 폭탄’을 쏟아냈다.

개인은 홀로 8조5천223억원을 순매수하며 저가매수에 나섰다. 이는 하루 순매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단안을 지지하는 데는 실패한 모습이다.

특히 전일 5.61% 급등하며 25년 7개월여만에 삼성전자[005930] 보통주를 밀어내고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SK하이닉스가 12.47% 폭락, ‘250만 닉스’로 내려앉으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삼성전자 역시 12.31% 추락해 ‘31만 전장’이 됐다.

코스닥 지수도 76.88포인트(7.94%) 내린 891.52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전 급락에 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지수가 900선 아래로 무너지면서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주된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투자 출혈경쟁을 벌이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원하던 대로 미래 산업을 선점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든 것이 꼽힌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AI 거대기업들이 경제를 독식하게 해선 안 된다면서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는 ‘저가형 AI 모

델’이 우후죽순 등장해 가격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간담 뉴욕증시는 아마존(-4.75%), 엔비디아(-0.97%), 마이크로소프트(-3.18%), 메타(-2.32%) 등 주요 빅테크들의 주가가 일제히 내리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9% 오른 가운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37%와 1.33%씩 밀렸다.

현지시간 24일로 예정된 마이크로 실적발표에 대한 경계감도 배경이 됐다. 다만, 이날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닷케이 255 지수가 3.55%, 대만 가권지수가 1.34% 하락 마감하는 등 일제히 하락했으나, 한국만큼 큰 낙폭을 나타낸 곳은 없었다.

환율 1,540원 육박...외국인 4조 순매도·달러 강세

원/달러 환율은 23일 달러 강세와 외국인 대규모 주식 순매도에 이틀째 상승하며 1,540원선에 다시 바짝 다가섰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증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2.1원 오른

1,539.1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종가는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3월 19일·1,549.0원)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 5일과 같았다.

환율은 지난 8일 장중 1,555.2원까지 오른 뒤 방향을 틀어 15일에는 1,511.1

원으로 마감했다. 이후 19일 0.1원 하락한 것을 제외하곤 연일 상승세다.

이날 환율은 2.4원 오른 1,539.4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워 개장 초 1,540원대로 올라섰다.

환율이 주간거래 중에 1,540원을 넘

은 것은 지난 8일 이후 처음이다.

이후 당국 개입 경계가 커지면서 장중 하락 전환해 1,532.8원까지 내렸지만, 마감 전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 1,542.1원까지 올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간밤에 101을 넘어 고공행진 중이다. 현재 0.08% 오른 101.057이다.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도 환율을 끌어올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약 4조1천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코스피는 9.99% 급락한 8,203.84로 거래를 마쳤다.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 주소 | 금액 | 설명 | 주소 | 기간 | 세입자 |
|---|----------|--|---|-----------|--|
| 11893 Berton Lake Rd, Bristow, VA | \$689K | Victory Lakes 단지내에 있는 관리 아주 잘된 타운하우스, 교통/생활 편리, 6/25일 마켓에 올라올 예정 | 울 거울/내년 봄에 파견 나올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농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 7월 - 12월 | \$2,000 - \$5,500 가격대 렌트 |
| 2905 Bleeker St #4-304, Fairfax, VA | \$675K | 셀러/바이어 서로 좋은 조건으로 계약. Everybody Happy 7/15 세팅먼트 예정 | 2233 N Underwood St, Falls Church, VA | 7/1 입주가능 | \$10,000 2020년에 새로 지은 싱글 홈, Haycock ES - Longfellow MS - McLean HS |
| 13511 Lavender Mist Ln, Centreville, VA | \$675K | 투자용 집으로 구매, 1031 Exchange Program 으로 같이됨, 7/6 세팅먼트 예정 | 6615 Anthony Crest Sq, McLean, VA | 8/15 입주예정 | \$5,500 환상적인 집, 5개 신청서 중에서 Lori 손님 선택, 주재원 2년 |
| 13343 Connor Dr, Centreville, VA | \$425K | Stone Gate at Faircrest 콘도, 방 2, 차고 1, 3층 타운형 콘도, 학군(골린 파일 초등) 좋고, 교통, 생활 편리, 6/30 세팅먼트 예정 | 74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 7/1 입주예정 | 주재원 3년, 하루의 공실없이 주재원 연결 |
| 10003 Donal Ln, Vienna, VA | \$1.4M | 손님이 너무나 원하던 동네, 6개의 경쟁 오퍼 들고 \$3K 차이로 득템, Buyer So Happy, 6/30 세팅먼트 예정 | 1968 Hopewood Dr, Falls Church, VA | 6/16 입주예정 | 주재원 2년 |
| 6505 Orland St, Falls Church, VA | \$1.275M | Haycock 초/몽펠로우 중/매글린 하이, 경쟁 오퍼 들고 득템, 바이어 아이돌이 완전 해피, 6/22 세팅먼트 예정 | 7019 Alicent Pl, McLean, VA | 7/5 입주예정 | 주재원 3년 |
| 9902 Michael Schar Ct, Vienna, VA | \$835K | 투자용 집으로 구매, 한국에서 나오는 주재원 렌트 농을 예정, 6/18 세팅먼트 예정 | 2726 Gallows Rd, Vienna, VA | 6/25 입주예정 | 주재원 2년 |
| 11423 Abner Way, Fairfax, VA | SOLD | 5개의 경쟁오퍼 들고 득템, Buyer So Happy, 6/12 세팅먼트 완료 |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20120 | RENT | 사랑하는 우리 교민, 2년 |

직통 703-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일 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구해 줄**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교통사고 목, 허리 디스크, 좌골 신경통, 어깨, 무릎 통증, 직장사고, 운동사고,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이 대통령, 주한외교단 초청...숯뚜껑삼겹살·치맥 만찬

헤드테이블에 미·일·중·EU 대표들 자리...G7 순방 등 외교 성과 공유 "가교 역할 외교단,靑에 할 말 있을 것"...경청 의지 드러내며 건배 제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녹지원으로 주한 외교 사절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고 외교 성과를 공유했다. 주한외교단장인 사피 라사디 주한 모로코 대사를 비롯해 전체 118개국 상주 공관 대사와 30개 국제기구 대표가 자리했다. 주빈석(헤드테이블)에 배치된 국가는 모로코와 함께 미국,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몽골, 중국, 유럽연합(EU), 교황청, 칠레다. 이와 관련, 올해 주요 정상외교 방문·접수국가 및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안배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2년 연속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과

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활발한 정상 외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본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격려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에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대통령실에 직접 말씀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이라며 "참고로 의외로 제가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 말고 '건배'를 외칠 테니 각국의 언어로 건배를 해달라"고 제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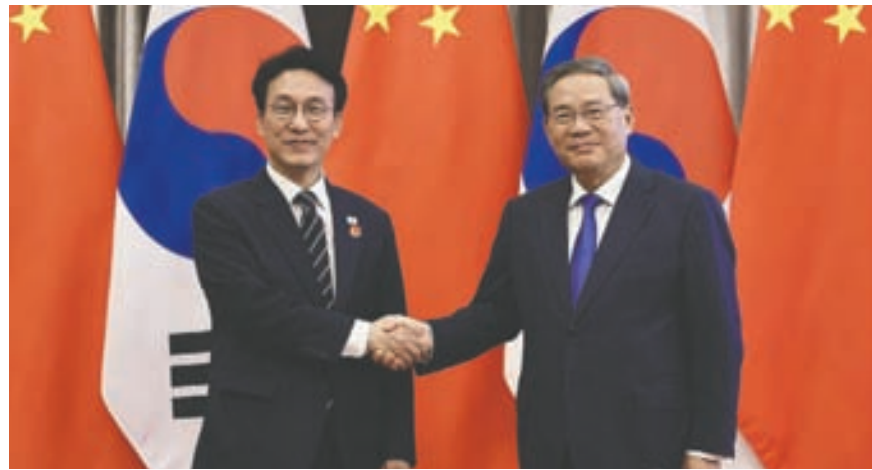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초대, 주한외교단 만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외교단을 비롯해 이 대통령 특사단 단장, 국회 외통위 위원,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만찬 메뉴로는 한국식 숯불구이(K-BBQ)와 치맥(치킨·맥주), 한국식 곁절이와 쌈밥 등이 뷔페 형식으로 제공됐고 카스 생맥주를 곁들였다. 치킨 외에도 숯뚜껑 삼겹살 구이, 숯불에 구운 쇠고기 와규 및 LA 양념갈

비, 양갈비, 왕새우, 치킨 소시지, 채소 등 다양한 K-BBQ 메뉴를 내놨다. 각국의 다양한 종교와 식문화를 고려해 제철 식재료를 준비했으며, 삼겹살을 제외한 모든 식재료는 할랄 인증 제품을 사용했고 비건 등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도 마련했다. 청와대는 이번 만찬과 관련해 "주한외교단과 소통을 정상적으로 복원했음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실질적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국정 2년 차 실용 외교 본격화를 위한 핵심 방향을 제시하고 각국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이 작년 12월 청와대로 정식 복귀한 이후 외교단과 처음 하는 만찬이다. 복귀 이전인 지난해 8월에도 외교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한 바 있다.

7년만의 한중 총리 회담...고위급 회동으로 관계개선 가속화

총리 회담 징검다리 삼아 다음 정상급 회동 이어질지 주목 한중 총리가 7년 만에 만난 다례 회담은 무엇보다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간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한 가운데, 총리 회담은 이러한 방향성을 재확인하고 관계 개선 동력도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오후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방문한 다례의 한 호텔에서 중국 권력 서열 2위의 리창 국무원 총리와 약 40분간 회담했다. 한중 총리 회담은 지난 2019년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와 리커창 총리의 회담 이후 7년 만이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만남은 양국 정상의 만남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정치적 만남의 하나

의 징검다리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정치·경제·문화·청년 등에 있어 한 단계 높은 교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계기 시진핑 국

가주석의 방한과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이어 양국 간 고위급 회동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리 총리도 이에 "양국 정상들의 전략적 지도에 따라 서로 신뢰를 증진하고 정성을 다해 협력의 넓이와 깊이를 확대해나갈 용의가 있다"며 정상 외교를 중심으로 하는 양국관계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측은 나아가 올해 11월 예정된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를 고위급 교류의 계기로 삼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결국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이번 총리 회담을 징검다리 삼아 올해 하반기 이후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다른 정상회담으로 연결하겠다는 양측의 기본적인 의지가 확인

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전후로 북중관계 강화의 흐름이 도드라지는 가운데,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 재차 당부하고 공감대를 끌어낸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가 올해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북미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에 남북대화·북미대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게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리 총리에게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정치·경제·문화·청년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하면서 앞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의제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 동력을 강화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김 총리는 이날 회담 이후 'VIP 만찬'에서 리 총리와 나란히 앉은 모습을 담은 '셀카'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여야 "무능에 책임져야"...국조서 '투표지 부족사태' 선관위 맹폭

여야는 23일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에서 선관위의 미흡한 보고 체계와 대응 능력 등으로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정조준, 유일한 상임 선거관리위

원으로서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특위가 사실상 본격 가동된 이날 회의에서는 기각 해이 문제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에도 대한 언급도 나왔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도 제기했으나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관리체계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이번 사태의 원인과 해결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당시 투표 당일 보고서와 상황일지마저 투표 중단에 대해 보고된 적이 없다"며 "기자가 선관위 공보과로 전화하니 공보

과가 사무총장과 노태악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선거 상황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선관위의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2020년 민경옥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누군가 훔친 투표지를 갖고 부정선거의 증

거라고 떠들지 않았나"라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부정선거 공격을 하니까 최대한 타이트 하게 관리해보려고 한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서범수 의원은 9명의 선관위원 중 유일한 상임위원인 위 직무대행을 겨냥해 "선관위법상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해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며 "선관위의 사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상임위원이 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희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퍼펙트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703-259-5617, 410-241-2520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6·25 76주년 기념식...오세훈 “영웅 기억해야 품격도시”

“소모적 정쟁의 소음 떠난 자리에 자유와 평화의 빛 남아”

서울시가 새로 조성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첫 공식 행사로 6·25전쟁 기념식을 열었다.

23일 오후 7시 ‘6·25전쟁 제76주년 서울시 기념식’에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청년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가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한 이날 기념식은 군악대 성악 중창, 국민의례,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짧은 창작 공연 등으로 구성됐다.

기념식 말미에는 23개 참전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감사의 빛 23’ 조형물에서 빛을 쏘아 올리는 의식을 진행했다.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시는 설명했다.

기념식 무대에는 참전국 언어로 ‘감사합니다’, ‘영웅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라고 적힌 조형물을 설치했다.

오세훈 시장은 “감사의 정원이 문을 연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행사를 뜻깊은 ‘6·25전쟁 기념식’으로 시작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참전용사와 보훈 가족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의 서울시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영웅을 끝까지 기억하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품격 있는 도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에서 열린 ‘6·25 전쟁 7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의 정원은 한국을 포함한 23개 참전국이 이뤄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지상부 조형물 ‘감사의 빛 23’과 지하 미디어 체험 공간 ‘프리덤홀’로 이뤄졌다.

방문 인원을 집계할 수 있는 ‘프리덤홀’은 감사의 정원이 문을 연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40일 동안 누적 6만2천여명이 다녀갔다고 시는 전했다.

6·25전쟁 참전국들과 전사자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서울시가 약 207억원을 들여 조성한 감사의 정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직면했다. 광화문광장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고 용산 전쟁기념관과 취지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이날 행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영웅을 기억하는 방식이 그 나라의 품격을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치적 편향은 순간이지만, 영웅을 향한 기억은 영원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이 공간을 두고 온갖 정치적 공세와 악의적인 편향기가 쏟아지기도 했다”며 “보훈마저 진영의 잣대로 난도질하려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하지만 소모적인 정쟁의 소음이 떠난 자리에 자유와 평화의 빛을 쏘아 올리는 23개의 기둥은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냈다”며 “이제는 매일 수많은 시민이 찾아와 편하게 휴식을 누리는 일상의 안식처가 된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썼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19일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19일째 이어지고 있다.

시위가 진행 중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는 23일 저녁에도 참가자들이 태극기·성조기와 손팻말을 들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쳤다.

낮 동안 노년층이 많았던 시위 현장에는 밤이 되자 일과를 마치고 온 직장인, 대학생,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 등이 합류했다.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 올림픽공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시간 인구는 1만2천~1만4천 명으로, 지난 주말 오전 10시와 비슷한 수치다. 이 데이터상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 이상(24.2%)으로 나타났다.

올림픽공원으로 향하는 지하철역 입구에서는 한 시민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환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8·15 천만 국민 저항권대회’ 참여를 호소하며 명함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날 낮에는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자, 목회자, 신학생 일동 기자회견 [촬영 정지수]

연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자·목회자·신학생 일동’ 등 일부 종교인들이 모여 재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요구했다.

시위가 장기화하며 참가자들끼리 자발적으로 구역을 나눠 활동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에는 “부정선거 에이웹(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한미공조 수사해” 구호를 외치는 청년들이 모여 있었다. 에이웹은 한국 선관위가 소속된 협의회로, 부정선거 시스템을 세계 각

국에 수출하는 몸통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돼 왔다.

이날 현장에서는 경찰에 체포된 시위자도 있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1-3 게이트 앞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핸드볼경기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임차료 청구에 따라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주의사업, 헌신하고 싶던 분야 북한 동포지원 살필것”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인도주의 사업은 130년간 저의 선조들이 걸어오신 길이자, 제가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늘 헌신하고 싶었던 분야”라고 말했다.

인 선출자는 이날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적십자사는 정치와 무관하게 순수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이라며 “그 회장은 혈액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으며,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 지원과 인도주의적 국제 협력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세심하게 살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 선출자는 “평범한 시민이자 의사인 저를 이 자리에 선출해 주신 것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우리 사회를 적십자 정신으로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국민 통합에 기여하라는 소명으로 믿는다”며 “이 엄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인 선출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자신의 적십자사 회장 발탁 배경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의사로서 전문성과 오랜 인도주의 활동 경력”을 우선 꼽았다.



적십자사 신임 회장에 인요한 전 의원 선출 [연합뉴스]

그는 정계 진출 전 북한을 29번 방문해 선조가 설립한 유전벨재단을 통해 결핵퇴치사업 등 인도주의의 대북 협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정치공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인사라고 해석했다.

전날 적십자사는 중앙위원회를 열어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인준을 거쳐 회장에 취임하게 된다.

그가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인사’로 해석됐다. 인 선출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불법 계엄으로 초래된 헌정 질서 훼손과 국민적 불행에 대해 천 가지 말 대신 ‘의원직 사퇴’라는 하나의 행동으로 소신을 실천했다”고 해명했다.

‘미군 실신’ 폭행 영상 확산...30대 거구 미국인 입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만난 주한미군들을 폭행한 30대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미군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미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께 평택시 신장동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주한 미군 소속 20대 남성 2명을 1차례씩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당시 노상에서 마주친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 화가 나

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며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모았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장기간 한국에서 거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 예쁘게 수리해서 더 빨리, 더 좋은 가격에 팔아드립니다!

실제 사례 광고 레스톤 타운홈 2018년 3월 \$270,000 구입, 2026년 6월 \$457,500 매매



수리 + 판매를 한 번에!

부동산의 모든 상담
앰플러스 부동산, 비키리 브로커
Tel: 703-231-5572

매릴랜드, 디씨 임대 주택 면허,
주택검사 대행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매릴랜드 주택 남성분 검사 인스펙터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매릴랜드 / 301-399-0140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갤럭시 S26 플러스

공짜



아이폰 17 프로

공짜

Contract 위약금 때문에 옮겨 오시기 망설여지신다구요? 라인당 최대 \$800까지 지원해드립니다.



갤럭시 S26 플러스 (256GB)

~~\$1,100~~

\$0

• \$95 이상 가치있는 스마트폰 트레이드인 시



아이폰 17 프로 (256GB)

~~\$1,100~~

\$0

• \$290 이상 가치있는 스마트폰 트레이드인 시



갤럭시 S26 울트라 (256GB)

~~\$1,300~~

\$5.56 /월

• \$95 이상 가치있는 스마트폰 트레이드인 시



아이폰 17 프로맥스 (256GB)

~~\$1,200~~

\$2.78 /월

• \$290 이상 가치있는 스마트폰 트레이드인 시

비즈니스 오너/개인사업자 4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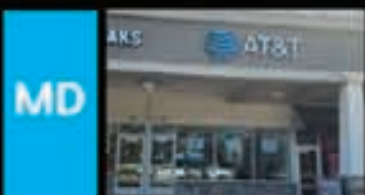
사용중인 폰 그대로 AT&T로 통신사 이동시

\$80 /월

AT&T 인터넷 \$20 /월



AT&T 모바일 서비스 이용 고객 기준



MD 락빌 / 실버스프링(Aspen Hill 쇼핑센터)

(301) 910-7700

13615 Connecticut Ave. Silver Spring, MD 20906



VA 페어팩스(99 Ranch Market 옆)

(703) 591-2442

1075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MD 엘리콧시티(롯데플라자 내)

(410) 465-0218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AT&T 페어팩스에서 함께 일할 분을 찾습니다

근무형태: 풀타임 / 파트타임

문의: (571)274-8901

● 상기 프로모션은 AT&T NEXT로 구매한 것에 한함. ● 상기 프로모션은 무제한 프리미엄 또는 엑스트라 플랜 가입 필수. ● 갤럭시 S26 플러스/울트라 프로모션은 \$95 이상 가치있는 스마트폰 트레이드인 필수, 아이폰 17 프로/프로맥스 프로모션은 \$290 이상 가치있는 스마트폰 트레이드인 필수.(Find my iphone 기능이 꺼지는 폰에 한에서만 트레이드인 가능) ● 비즈니스 프로모션 월 플랜 가격은 24개월 간체공기준. ● 인터넷 가격은 AT&T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기준, Autopay, Paperless bill 신청 할인 적용된 가격이며, 12개월간 매월 상기 가격으로 제공되며 이후에는 월 \$35로 자동 변경됨. ● 모든 프로모션은 매월 크레딧으로 제공.(차액 발생시 본인부담) ● TAX 및 기타 FEE는 별도. ● 상기 프로모션은 사전 고지없이 변경 또는 종료 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사전 확인 요망.

독자투고

76년 전 유월 이야기 -1-

6월이다.
미국 친구들의 6월은 여자들이 시집가고 싶어 하는 달,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달, 하늘은 높아지고 나무들은 만지면 녹색 물이 묻어날 것 같은 달이다.
하지만 내게는 6월이 그렇게 아름답고, 파스하고, 반가운 계절로 다가 오질 않는다. 아직도 6월 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6.25인 때문이라. 이제 24년만 더 지나면 100년을 채울 터인데도 그 아팠던, 그 속에서도 살아 난, 그 옛날을 잊을 수 없는 때문이라. 어쩌면 세월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이든 값을 하는 건지도 모르지. 옛그제 손자가 대학을 졸업 했다. 미국서 태어나 미국사는 그 아이는 6.25에 대해 아는 것 하나 없다. 아마 이란 사태에 대해서는 꽤 알고 있으리라.
그렇다고 손자에게 “내가 6살 때 터진 전쟁 6.25는...”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 물론 없다. 손자에게는 손자의 내일이 중요하니까. 6살이었던 나에게 나의 삶이 중요했듯이.
전쟁은 싸움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들만 힘든 것은 아니다. 6살이었던 나 역시 힘들었다. 무척 힘들었다. 전쟁이 나면 날씨조차 등돌리고 돌아선다. 1950년의 겨울은 한국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 중 하나였다고 한다.
나의 어머니는 그와중에, 그것도 1월 초에, 나의 네번째 동생을 낳고 누워 계셨고 겨우 일곱 살이 되었던 나는 얼음 언뿔에 가서 얘기 푹 푹 지귀를 빨아와야 했다. 7살인 어린 기저배가 말이다. 푹 푹 지귀를... 얼음 언뿔에 빨아와야 하는... 그런 것이 전쟁이다. 나의 손발은 심한 동상으로 손

인지 발인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것이 전쟁이다. 전쟁은 그런 것이다.
그 때 나는 다짐했다. 나 자신에게 약속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난다면, 전쟁 없는 곳으로 가서 살 것이라고. 죽어도 전쟁 없는 곳, 손발에 얼음 박이는 동상이 없는 곳, 그런 곳으로 가서 살 것이라고. 그것이 7살 내가 내게 했던 약속이었다.
미군들의 질차가 흠먼지 뽕양게 날리며 지나가면 아이들은 그 뒤를 발빠르게 쫓아가며 소리 질렀다. “김미 쫓꼬렛, 김미 쫓꼬렛! 김미, 김미!” 외치면서 말이다. 난 그 짓을 한번도 못 해봤다. 나도 쫓꼬렛 달라고 쫓아가며 외치고 싶었지만 문밖을 나갈 때 내 등에는 항상 아기가 얹혀 있고 발 빠르게 미군 트럭 따라 갈 재주가 없어 그 짓 한번도 못 했다.
애기가 얹혀 있지 않을 때는 밀린 부엌일이 내 일이었다. 부엌이 내가 주로 사는 곳이었다. 이제 말 제법 하는 남동생은 나를 ‘부엌애기’라고 불렀다. 주로 내가 사는 곳이 부엌이니까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다. 우리 사는 집이 바로 교회 옆이어서 나는 엄마가 얹어주는 애기 얹고 교회 옆을 걸으며 오간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상을 주먹으로 두들기며 하는 설교를 듣는다. 그것이 나의 학교였다. 학교 가지 못하는 내게는 그것이 나의 학교였다. 하나님은 학교를 내 옆에 가져다 주신 셈이다.
교회 안 할머니들은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며 중얼 거린다. “주여, 용서 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할머니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나는 궁금했다. 나는 할머니와 나의 유년

기, 4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에 대해서는 좀 안다. 할머니는 죄가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할머니들은 죄가 없다. 엄마는 푹 푹 지귀 빨아 오르고 동지 선담에, 얼음 언뿔에 가서 푹 푹 지귀 빨아 오라고 시키지만, 할머니는 차마 그런 일 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할머니, 자신이 하신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죄가 없지만, 내 어머니는 죄가 많다. 그런 일 시키지 않는 할머니는 죄가 없다. 우리와 함께 여기 할머니가 계셨다면 푹 푹 지귀 빨아는 일, 밥하는 일 모두 할머니가 하실테지만 할머니는 고모, 삼촌들과 살기 때문에 날 도와줄 수 없다. 7살, 나의 작은 머리속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부지런히 오갔다. 그런 것이 나의 학교였다.
그런데 큰 일 났다. 목사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5번째 계명이다”, “죽어서 천당 가려면 10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다른 계명들은 잘은 몰라도 다 지키는 셈인 것 같은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지키지 못하고 있다.
얼음 언뿔에 가서 얘기 푹 푹 지귀 빨아 오라는 엄마, 제대로 빨아 오지 못하면 나를 두들겨 패는 엄마를 나는 공경하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살아서는 이렇게 동상 걸려 떨어뜨려?
죽으면 지옥 불에 타야 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것일까? 일곱 살 내 머리 속은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다. 헛갈려도 보듯 헛갈리는 것이 아니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죄 없이 살 수 있는 나의 길이 보이지 않았다.

김성혜(수필가, 버지니아)

이런말저런글

‘책날개’에 무엇이 쓰여 있을까

책날개의 저자 소개를 보면 ○○○은 학문 깊이가 남다른 학자다. 책날개라. 책에도 날개가 있단 말인가? 물론이다. 앞날개와 뒷날개, 그렇게 둘. 책의 겉표지 일부를 안으로 접은 부분을 가리켜 책날개라 한다. 대개 앞날개에는 저자 소개가, 뒷날개에는 출판사 광고물이 실린다. ‘대개’가 수식어로 쓰인 이유는 안 그럴 때도 있어서다. 누구나 다 아는 작가의 저명한 책이라면 앞날개가 하얀 백지인 경우도 있다. 다른 책 광고 대신 그 책의 서문 등 내용 일부를 뒷날개에서 먼저 만나는 일도 있고.
‘인간의 모든 경험이 녹아 있다’는 책이라서 그렇까. 책을 폼들 때는 생뿔처럼 다루는 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책엔 ‘등’도 있다. 책을 매어 놓은 쪽의 겉으로 드러난 부분. 책등에는 책 제목, 저자명, 출판사명이 적힌다. [나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시기 전에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내 책을 서가 제일 높은 층에다 책등이 안 보이도록 반대로 꽂아 놓는 일이었다.] (박완서/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책등이 안 보이도록 반대로 꽂으면 보이는 쪽은 ‘책배’다. 표준국어대사전엔 없지만 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쓴다. 책등과 책배를 뺀, 네모난 책의 위, 아래는 뒀가. 책머리와 책꼬리다. 책은 옷도 입는다. 책의 맨 앞과 뒤의 겉장을 책의(冊衣)라 하는 게 증거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을 앞두고 교보문고가 지난 10년(2016년 4월 17일~2026년 4월 16일·온오프라인 합산) 누적 베스트셀러 순위를 집계한 결과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가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상위 10권 중 6권이 한국 소설인데 ‘작별하지 않는다’(8위)까지 포함하면 한강 작가의 작품만 3권이라고 한다. 더 많은 사람의 손에 더 다양한 작품이 쥐인다면 어떨까. 책꽂이에 잠들어 있는 ‘그’ 책을 깨워 별 잘 드는 곳에서 책날개 훑어보기 딱 좋은 때 아닌가.

고형규 기자

인&아웃

반전 없는 국민의힘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국힘)은 서울 기초단체장 25곳 중 8곳만 건졌다. 2022년 지방선거 때와 정확히 뒤집힌 성적표다. 부산시장도 내줬다. 광역단체장 기준 12대4, 숫자로만 보면 참패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근거로 선거 소청을 예고하고 “전국 재선거를 목표로 싸우겠다”라고 했다.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음모와 의혹의 언어를 전파하고 있다. 대중의 눈에 국힘은 생명력 잃은 좀비 정당처럼 비친다.
국힘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 민심은 일찌감치 ‘절연(絶緣·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그 요구를 거부했다. 계엄 이후에도 ‘윤어게인’ 행보를 이어가며 당을 과거의 높으로 끌어당겼다. 국힘은 계엄 해제 표결에 대거 불참했고, 탄핵에 반대했으며, 한남동 관

저 앞에서 체포 저지에 나섰다. ‘내란옹호 세력’이라는 낙인은 민주당의 정치적 프레임이지만, 국힘은 이미지 탈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
특히 TK(대구·경북) 의원들은 침묵했다. 당의 진로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인데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지도부는 진영 논리에 기댔다. 쇠신의 신히환이 돼야 할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예상대로 당권과 정점식 의원이 선출됐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그 운율을 맞출 뿐이다”라고 했다. 실제로 영국 보수당은 1997년 총선 참패 이후 13년 동안 집권에 실패했다. 내부 노선 갈등과 지도부 교체만 반복했고, 중도층을 잃은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캐나다 진보보수당은 1993년 총선에서 156석에서 2석으로 붕괴했다. 유권자들이 보수정당을 포기한 결과였다. 지금 국힘은 TK라는 지역 기반과

40% 안팎의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어 캐나다식 붕괴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영국 보수당식 장기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중도층은 떠나고 강성 지지층만 남는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국힘은 이제라도 선거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극우 유튜브 세력과 거리를 두며 대안 정당으로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TK 중심 체제를 넘어서는 용기도 필요하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은 검경 수사와 국정 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재선거 주장으로 민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은 책임 정치가 아닌 꼼수에 가깝다. 반전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를 바꾸는 정당만이 반전을 만든다. 지금의 국힘은 아직 그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

김성혜(수필가, 버지니아)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MEDIA CENTRAL NEWS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범수
편집국장 홍말벗 광고국장 송동윤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체 계약 제휴사
연합뉴스, 코리아타운 데일리, Washington Post

황계실 571-239-6054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
부동산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 | | |
|--|--|---|
| 1. 천트리 하이싱글 Sold \$1,379,000 방5, 화4.5, 차고2, 콘택, 최고 학교, 잘관리 된 집 새 지붕 (2018) 및 HVAC 교체, 실내 새 페인트, 주방 가전 업데이트. | 4. 애쉬번 럭셔리 타운 \$929,000 3,660sqft, 2015, 방4, 화 3.5, 차고 2, 최고 학교 Rock Ridge HS, RT 50/66/267, 달러스공원, 교통요지 | 7.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 5.5, 차고3, 선룸, 고급 조명,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문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
| 2. 헌트 콘도 \$579,000 2022년 새 콘도 방2, 화2, 차고1, 새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 | 5.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 8. 알디 싱글 Sold \$869,000 2004년, 방4, 화2.5, 차고2, 전세마루, 구건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 |
| 3. 센터빌 스톤게이트 콘도 \$379,000 방2, 화2, 풀린 파워 초, 센터빌 고, 교통 중심 | 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Sold 1. Haymarket 55+ Villa 방3, 화3.5 차고 2 2. 매나사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차고2 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차고 2 | 9. 알링턴 아미네이비 콘도 \$345,000 방1, 화1, 2000년, 700 sqft, DC 근교 교통요지 |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 | |
|---|--|---|
|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
|---|--|---|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2026 U.S. 뉴스대학랭킹... DMV 지역 대학 순위 요동쳤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가 최근 발표한 '2026년 미국 최우수 대학 순위(Best Colleges Rankings)'에 따르면, 워싱턴 DC를 비롯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DMV) 지역 주요 대학들의 성적표가 요동치며 학부모와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요 공립대와 사립대 간의 순위 싸움이 일어난 가운데, 졸업생 성과와 실질적 ROI(투자 대비 수익률)를 강조하는 평가 방식의 변화가 지역 대학들의 희비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버지니아주 최고의 명문 공립 대학인 버지니아대(UVA)는 전국 종합대학 순위에서 공동 26위를 기록하며 지역 내 공립대 최고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UVA는 전국 탑 공립학교(Top Public Schools) 부문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대(UNC) 채플힐과 함께 공동 4위에 오르며 명성을 재확인했다.

버지니아 테크(Virginia Tech)와 윌리엄 앤 메리(William & Mary)는 종합순위 공동 51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특히 버지니아 테크와 윌리엄 앤 메리는 전국 공립대학 순위에서 공동 21위를 차지하며 탄탄한 교육 역량을 과시했다. 한인 학생들의 대거 재학 중인 페어팩스 소재 조지메이슨대(GMU)는 공동 117위를 기록했다.

메릴랜드주를 대표하는 메릴랜드대 칼리지파크(UMD)는 종합순위 공동 42위에 랭크되며 저력을 보였다. UMD는 공립대학 전국 순위에서 16위를 차지하며 최상위권 공립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사립대 부문에서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소재 존스홉킨스대(Johns Hopkins University)가 전국 공동 7위를 기록, 전국의 내로라하는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DMV 지역 최고의 명문 사립대 위상을 확고히 했다.

워싱턴 DC의 간판 사립대인 조지타운대(Georgetown University)는 에모리대와 함께 공동 24위에 오르며 탑 25위권을 유지했다. 반면 조지워싱턴대(GWU)는 공동 59위, 아메리칸대(AU)와 하워드대(Howard University)는 공동 88위로 그 뒤를 이었다.

학부 중심의 명문 사립대인 리버럴아츠 칼리지(National Liberal Arts Colleges) 부문에서도 버지니아주 학교들의 강세가 돋보였다. 워싱턴 앤 리 대학교(Washington and Lee



프린스턴 전국 1위·존스홉킨스 공동 7위... 시카고대 탑 10 재진입 공립대 자존심 DMV 지역 대학 버지니아대 26위, 메릴랜드대 42위 등으로 명문 입지 굳혀

University)가 전국 21위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으며, 리치몬드 대학교(University of Richmond)가 공동 22위로 바짝 추격했다. 이어 버지니아 군사학교(VMI)가 공동 65위를 기록했다.

지역 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학 순위 결과에 대해 대외적인 간판보다는 실제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적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U.S. 뉴스 측이 평가 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대학의 단순한 명성 평판도나 졸업생들의 자발적 기부금 액수, 신입생의 고교 내신 성적 같은 투입 지표들의 반영 비율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대신 저소득층이나 펠그랜트(Pell Grant) 수혜 학생들의 중도 탈락 없는 졸업률, 그리고 졸업 후 첫 직장에서 받는 평균 연봉과 부채 비율 같은 산출(Outcome) 지표의 비중을 대폭 늘렸다. 결국 학비가 비싸고 장학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사립대보다는, 학비 가성비가 좋고 지역 내 탄탄한 취업망을 보장하는 대형 주립대학들이 장기적으로 순위 상승의 탄력을 받게 되는 구조다.

버지니아주 일대의 한 교육 전문가는 "대학 순위는 기관의 주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는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특

히 한인 학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성향과 전공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분야, 그리고 학교가 제공하는 재정 보조(Financial Aid) 혜택의 규모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컴퓨터공학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를 희망한다면 종합순위 51위인 버지니아텍이나 42위인 메릴랜드대학교가 상위권 사립대보다 훨씬 뛰어난 전공별 역량과 로컬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 전역의 내로라하는 명문 사학들이 경쟁하는 전국 종합대학(National Universities) 부문에서는 전통의 강호 프린스턴 대학교가 올해도 변함없이 단독 1위 자리를 지켜내며 미국 최고 명문 사학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프린스턴 대학교는 철저한 학부 중심의 엘리트 교육과 전폭적인 재정 보조 장학금 제도를 바탕으로 부동의 왕좌를 고수했다. 그 뒤를 이어 혁신적인 이공계 연구와 글로벌 인재의 요람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가 당당히 2위를 차지했으며,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하워드 가문의 자존심 하버드 대학교가 3위에 랭크되며 최상위권 탑 3 체제를 유지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상위권 변동 중 하나는 서부의 맹주 스탠퍼드 대학교와 아이비리그의 핵심 예일 대학교가 치열한 접전 끝에 전국 공동 4위에 나

란히 이름을 올린 점이다. 또한 지난 평가에서 다소 주춤했던 중부의 명문 시카고 대학교가 올해 무려 다섯 계단이나 뛰어오르며 전국 6위로 탑 10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해 교육계를 놀라게 했다. 이어 명문 사학인 듀크 대학교, 메릴랜드의 자존심 존스홉킨스 대학교, 중부의 노스웨스턴 대학교, 그리고 아이비리그 일원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Penn)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전국 공동 7위라는 거대한 타이브레이크(동률 순위) 그룹을 형성했다. 반면 세계적 천재들이 모이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Caltech)는 다소 순위가 밀려나며 올해 11위를 기록했고, 뉴욕주 고등교육의 중심 코넬 대학교가 12위로 그 뒤를 바짝 쫓았다. 뒤이어 브라운 대학교와 다트머스 대학교가 공동 13위, 컬럼비아 대학교와 서부 공립대의 대명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가 공동 15위에 안착했다.

전국 주립대 및 공립대 랭킹에서는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대 계열의 강세가 여전히 매서웠다. UC 버클리와 UC 로스앤젤레스(UCLA), 그리고 중부의 미시간 대학교 앤아버가 전국 최고의 공립대 탑 3를 형성한 가운데, 버지니아 지역 공립 교육의 자존심인 버지니아 대학교(UVA)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UNC) 채플힐과 함께 공립대 전국 공동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버지니아대학교는 종합대학 순위

에서도 전국 공동 26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두며, 미 전역에서 손꼽히는 최고 수준의 공립 명문임을 다시 한번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각인시켰다.

버지니아주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버지니아텍(Virginia Tech)과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College of William & Mary)는 전국 종합대학 순위에서 약속이나 한 듯 공동 51위에 나란히 랭크되며 치열한 라이벌 구도를 이어갔다. 버지니아텍은 컴퓨터공학을 필두로 한 이공계 분야에서 압도적인 취업 성과를 내며 순위를 견인했고, 윌리엄 앤 메리는 사립대 못지않은 철저한 학부 중심의 인문교양 교육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공립대 순위 공동 21위를 함께 마크했다. 한인 동포 사회와 가장 밀접하고 페어팩스 카운티의 중심 거점 역할을 하는 조지메이슨대학교(GMU)는 종합순위 공동 117위에 이름을 올리며 IT 및 행정 전공 분야의 높은 지역 내 취업률을 바탕으로 견고한 입지를 다졌다.

이번 2026년도 U.S. 뉴스 대학 순위 결과에 대해 워싱턴 지역의 진학 전문가들은 학부모들이 단순히 숫자의 오르내림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대학 평가 기관이 시대적 요구에 맞춰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과 '학부 부담 완화 정도'에 배점을 대폭 늘렸기 때문에 일어난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자녀의 대학 진학 전략을 구체화할 때는 종합대학 순위라는 거대한 틀보다는 자녀가 진심으로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별 특성화 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실속 있는 선택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등의 실용 학문을 공부하고자 한다면, 종합 순위가 더 높은 비싼 사립대보다 종합 순위는 40~50위권이라도 해당 전공 분야에서 미 전역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로컬 기업 네트워킹을 자랑하는 메릴랜드대학교(UMD)나 버지니아텍(Virginia Tech)이 학생의 미래 커리어에 훨씬 유리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녀의 개인적 성향이 대규모 강의실의 활력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리버럴 아츠 칼리지처럼 교수와의 긴밀한 소통을 선호하는지를 먼저 면밀히 파악하고, 각 가정의 재정 상황에 맞는 장학금 혜택을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구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 임상경력 50년
- * 각종 보험 취급
- * VA, MD, DC 면허 소지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서울 미구 한방병원
29 White Oak 도서관
EXIT 28A
650 495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미디어 중앙 시론

‘투표용지 상자’ 초고속 폐기 논란, 흔들리는 선거 신뢰의 민낯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가장 신성한 보루는 투표소이며, 그 투표소에서 나오는 모든 기록과 증거물은 선거의 공정성을 입증하는 최후의 보증서다. 투표가 끝난 후에도 선거 과정에 대한 치의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관련 물품들을 엄격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정가에서 불거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증거물 폐기 논란은 해외에서 모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미주 동포 사회와 한인 지도자들에게 깊은 우려와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선거 관리 시스템이 도리어 의혹의 중심에 서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것은 사후 대처와 행정의 투명성 부재다. 선관위는 무려 7.4톤에 달하는 대규모 선거 인쇄물을 급히 폐기하면서 현행법상 당연히 작성하고 보존해야 할 ‘폐기물 인계서’조차 남기지 않았다. 법원이 폐기물 인계서와 ‘올바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전자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음에도, 선관위는 모두 ‘부존재한다’는 납득하기 힘든 회신만을 보냈다.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절차적 불법을 자인하는 꼴이며, 의혹을 해소해야 할 헌법기관이 도리어 의혹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선거의 공정성은 단순히 투표 당일의 투표 개표 과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선거 이후에 제기되는 정당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에 협조하는 과정까지가 온전한 선거 관리의 영역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과 신뢰는 선관위의 투명한 관리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증거가 영구히 사라진 지금, 남은 방법은 수사기관의 강력한 강제수사를 통해 고의적 증거인멸 여부와 선관위 지휘부의 개입 가능성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뿐이다.

미주 한인 사회는 늘 고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응원해 왔다. 타국 땅에서도 조국의 정치가 투명하고 정의롭게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의 석연치 않은 행보는 선거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위신을 떨어뜨리는 부끄러운 얼룩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경찰과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 관계자 전원에게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아직 남아 있는 선거 관련 자료들이 추가로 소실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흐려진 선거 공정성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어떤 정치적 고려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세부 정황을 뜯어보면 의구심은 더욱 증폭된다. 선관위 내부의 단체 대화방 기록에 따르면, 당일 오후 5시가 넘도록 다른 투표소들의 선거 물품 반납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다고 한다. 통상적인 행정 절차라면 모든 투표소의 물품을 일괄적으로 취합한 뒤 투명한 절차를 거쳐 폐기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다. 그러나 선관위는 오직 이 ‘1,900매 상자’가 포함된 오전 수거 물량만을 정오에 급하게 폐기장으로 직행시켰다. 게다가 법원으로부터 현장 증거를 보존하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직접 받고도 폐기업체에 폐기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은 고의적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든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미디어 중앙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Toda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시 설

월가 기침에 폐렴 앓는 한국 증시

지난 22일 뉴욕 나스닥 지수가 2% 밀리는 사이, 한국 코스피(KOSPI)는 10%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2% 넘게 추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린 결과다.

미국발 AI 거품론과 연준의 금리 인상 시그널에 외인들이 가장 먼저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자, 그 매물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은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들이었다. 미국 시장의 조정폭에 비해 한국의 추락이 유독 파괴적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증시가 얼마나 기초체력이 약한 ‘모래성’ 구조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폭락은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병폐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첫째는 반도체·AI 단일 섹터에 과도하게 쏠린 ‘천수답 구조’다. 해외 기술 트렌드가 조금만 흔들려도 국가 자본시장 전체가 젠가 타워처럼 흔들리는 취약성을 노출했다. 둘째는 우리 증시가 외인의 해

지(위험회피)용 ‘수금 창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일본 닛케이가 3.6% 하락할 때 한국이 세 배 가까이 폭락한 것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한국 주식을 가장 쉽게 던지는 ‘단기 현금화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모국에 자산을 두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미주 한인들에게도 한국 자본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은 자산 가치 훼손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리스크다.

금융당국은 알고리즘 매매 등 외인의 변동성 유발 요인에 대한 안전장치를 재점검해야 하며, 기업들은 반도체 작사에서 벗어나 주주환원과 신성장 다변화로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한다. 미국 금리와 기술주 추이에만 목을 매는 천수답 증시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번 경고마저 무시한다면 다음에는 시장의 바다가 뚝뚝 빠져 나갈 것이다.

‘마에스트로’ 그린스펀의 타계... 그가 남긴 혜안과 교훈

세계 경제의 ‘마에스트로’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품어줬던 앨런 그린스펀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향년 100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1987년부터 2006년까지 18년 반 동안 레이건, 부시, 클린턴, 소부시 등 4대 행정부에 걸쳐 미국의 중앙은행을 이끌었던 그의 별세는 세계 경제사의 거대한 한 장(章)이 막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그린스펀은 단순한 관료가 아닌,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경제의 예언자’였다. 취임 직후 맞이한 1987년 ‘블랙 먼데이’ 주가 폭락 사태 때 과감한 유동성 공급으로 위기를 진화했고, 1990년대에는 IT 혁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정확히 간파했다.

당시 주류 경제학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물가 상승 없는 전무후무한 ‘골디락스(호황)’ 호기기를 이끌어낸 것은 그의 통찰력이 빛난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의 모호하면서도 신중한 언어 스타일, 이른바 ‘그린스펀 화법(Greenspan speak)’은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조율하는 지휘봉이었다. “내 말이 명확하게 들렸다면 내 말을 오해한 것”이라는 그의 명언처럼, 그는 단어 하나로 시장의 과열을 식히고 불안을 달래

며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미국 정착과 자산 형성 과정에서 미국 경제의 궤적과 함께해 온 미주 한인들에게도 그의 정책은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가 다져놓은 장기 호황의 토대 위에서 수많은 동포가 비즈니스를 키우고 아메리칸드림을 일궈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1997년 외환위기가 당시 그의 막후 지원과 글로벌 금융 조율에 힘입어 위기를 극복했던 인연이 깊다.

물론 인기 말의 초저금리 기조가 훗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불씨가 되었다는 일각의 비판도 존재한다. 그 스스로도 퇴임 후 시장의 자정 능력에 대한 과신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기마다 발휘된 그의 동물적 감각과 데이터에 기반한 유연한 실용주의는 공과(功過)를 넘어 오늘날의 중앙은행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자산이다.

최근 고물가와 금리 예측 실패,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시장을 읽는 ‘거장의 혜안’이 그리운 시기 이기에 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 세계 경제의 나침반 역할을 했던 그린스펀 전 의장의 영면을 전 미주 한인 동포들과 함께 깊이 애도한다.

주요포토



하루 앞으로 다가온 6·25 전쟁 76주년

6·25 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둔 23일 경기도 오산시 죽미령평화공원을 찾은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유엔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행군 모습이 새겨진 조형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하십시오!"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 로컬 마케팅 진단 (서울·경기 한정)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www.intelisystems.com

특점 Centreville 타운홈

엔드 유닛, 2 CAR GARAGE, 전면 벽돌,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멋진 경치, 넓은 부엌과 거실,
나무 마루, 넓은 인방과 화장실, 위크아웃 베이스먼트,
넓은 DECK, FENCE 있는 뒷마당, 많은 VISITOR PARKING 공간, AS IS CONDITION

\$739,000



특점 Centreville 타운홈

엔드 유닛, 거라지 타운하우스, 집 전체 리모델링,
탁트인 고급 부엌과 새 주방용구, 새 지붕, 새 창문,
새 나무마루, 새 HVAC, 새 페인트,
남향 밝은 DECK과 FENCE

\$500,000



특점 Aldie 고급 싱글홈

5,800sq, 40만불 이상 업그레이드한 집, 2024년, 방5, 화5%,
최고급 빌더, Premium Lot, 더블 아일랜드, 최고급 기능
부엌, 특별하게 디자인된 인방 화장실과 Working Closet

\$1,725,000



Sold

특점 Annandale 오피스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밝고 환한 사무실,
변호사, 부동산, 미장원, 닥터 오피스,
교통편리, 넓은 주차장, 예난데일 중심가

\$280,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6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미디어 건강

THE KOREA TODAY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법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후각·미각 상실, 당뇨·뇌졸중만큼 삶의 질 악화시킨다”

후각이나 미각을 잃은 사람들이 음식의 즐거움 상실과 우울증 사회적 위축 등으로 겪는 삶의 질 저하 수준이 당뇨병 뇌졸중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과 비슷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노리치 의대 칼 필콧 교수팀은 17일 의학 저널 임상 이비인후과학(Clinical Otolaryngology)에서 후각·미각 장애(SATDs) 환자의 삶의 질과 정신건강 수준을 다른 만성질환들과 비교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가 후각이나 미각 상실을 단순한 불편 정도로 여겨온 기존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다며, 후각·미각 장애가 초래하는 부담이 의료계와 사회에서 충분히 인식되지 못해 왔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후각·미각 장애가 환자의 삶에 미치는 부담을 평가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문헌을 검토, 당뇨병 뇌졸중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등 대표적인 만성 질환 환자의 삶의 질 및 우울증 지표와 비교했다.

우울 증상 평가는 벡우울척도(BDI: 0~63점 중 0~9점이면 정상 범위)가 사



코로나19 후유증 후각 상실(CG)

[연합뉴스]

英 연구팀 “우울·사회적 고립 증가 치료법 개발·전문 진료 확대 시급”

용됐고, 삶의 질 평가에는 이동 능력과 일상생활 수행, 통증 불편감, 불안 우울 등이 반영된 EQ-5D-5L(0~1점 중 1에 가까울수록 건강)이 사용됐다.

분석 결과 후각·미각 장애 환자 삶의 질(EQ-5D-5L)과 우울증(BDI) 점수가 당뇨병, 뇌졸중,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환자들에게서 보고된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각·미각 장애 환자 445명을 대

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EQ-5D-5L 점수는 0.79점, 평균 벡우울척도 점수는 13.38점으로 확인됐다.

당뇨병 환자의 EQ-5D-5L 점수는 연구에 따라 0.72~0.82 수준이었고, 뇌졸중 환자는 0.68, 천식 환자는 0.84 안팎, 만성 심부전 환자는 0.60~0.73 수준이었다.

실제로 후각·미각 장애 환자 집단에서는 약 45%만이 정상 범위의 기분 상태를 보였고, 나머지는 경도 이상의 우

울 증상을 나타냈으며, 후각 상실 정도가 심할수록 우울 증상도 심해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필콧 교수는 “후각·미각 장애 환자들은 음식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사회적 교류에 어려움을 겪고, 연기나 가스 냄새를 맡지 못해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감정이 무뎠어지는 듯한 괴로운 경험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는 후각·미각 장애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정서적·사회적·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고, 그 영향이 흔히 삶을 바꾸는 질환으로 여겨지는 만성질환에 필적하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다만 이 결과는 후각·미각 장애가 당뇨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질환 자체와 동일한 심각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필콧 교수는 “이런 심각성에도 후각·미각 장애는 여전히 과소 평가돼 의료계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문제로 취급되고 효과적인 치료법도 제한적”이라며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연구 확대, 전문 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충남 과수농가에 웨어러블 로봇 65대 보급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아산·논산·금산 청양 태안 등 5개 시·군에 웨어러블 로봇 65대를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과수 시설원에 농가에 보급될 웨어러블 로봇은 현대자동차·기아 로보틱스 랩이 개발한 것으로, 팔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반복 사용하는 작업 때 어깨 관절과 근육의 부담을 줄여준다.



충남 과수농가에 웨어러블 로봇 65대 보급 (충남도 농업기술원 제공)

무동력 구조가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배터리나 모터 없이 작동하는 이 장비는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반복해 올리는 작업에서 관절과 근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농업기술원은 실제 작업 환경에서의 효과를 분석해 향후 농업 분야 웨어러블 기술 보급 확대와 농작업 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은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은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농업 재해”라며 “웨어러블 로봇의 현장 적용성을 면밀히 검증해 농업인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구독신청 **703-281-9660**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현스 홈케어 서비스

HYUNS HOMECARE SERVICE

Always With You!

30년 삼성 HR 경험, 이제는 홈케어 서비스와 함께 합니다.

“사랑을 아는 경험, 사람을 돌보는 마음 - 현스 홈케어”

어르신 상담
Senior Consulting Service

- ▶ 맞춤형 개인 간병 서비스 (치매 상담제공 - CDP)
- ▶ Medicaid 신청 및 각종 정부 지원 안내 (푸드 스탬프, 교통 지원 등)
- ▶ Senior Living 안내 (시니어 아파트, 그룹홈 등)
- ▶ 병원 및 약국 업무 대행 서비스
- ▶ 의뢰기기 및 개인용품 주문 서비스

복잡한 롱텀케어 신청 도와 드립니다.

간병사 모집
Caregiver Recruitment

- ▶ 월 2회 간병사 교육 및 Certification 발급
- ▶ CNA 교육 지원 (시험 응시로 1회 지원, 취득 시 추가 혜택 제공)
- ▶ 주급 지급 (매주 금요일)
- ▶ 안정적인 근무 배정 및 경력 관리 지원
- ▶ 친절하고 체계적인 행정 지원

TEL: 703.507.2492 Mr. 배 571.334.3963 Mr. 윤

FAX: 571.789.2234

Hyunshomecare@gmail.com
2834 Hill Rd., Vienna, VA 22182
www.hyunshcs.com

“근력운동 여성, 심혈관질환·심근경색 위험 20%·44% 낮아”

美 연구팀 “유산소 운동 병행·좌식시간 줄이면 예방 효과 더 커져”

역기 들기 같은 근력운동을 꾸준히 하는 여성은 주요 심혈관질환(CVD) 위험이 낮아지고,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고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면 예방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 T.H. 쉐ن 공중보건대학원 텐웨 장 박사는 18일 미국심장학회(JACC)에서 여성 11만7천여명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 주당 2시간 이상 근력운동을 한 여성은 근력운동을 하지 않은 여성보다 주요 심혈관질환 위험이 20%, 심근경색 위험이 44% 낮았다고 밝혔다.

장 박사는 “이는 활동적인 사람도 근력운동을 하면 심혈관질환 위험을 추가로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유산소 운동·좌식 생활 감소와 함께 근력운동은 여성의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중요한 공중보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혈관질환은 여전히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실천 가능한 예방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질환 예방에 좋다는 사실은 잘 확립돼 있다.

미국 보건 당국은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주당 최소 150분의 중등도 이상 유산소 운동과 함께 주 2회 이상의 근력운동을 권고하며, 장시간 TV 시청 등 좌식 행동도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연구팀은 그러나 역기나 체중, 아령, 저항 밴드 등을 이용해 근육에 저항을 가하는 근력운동이 유산소 운동 외에 추가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간호사건강연구 간호사건강연구Ⅱ(NHS: NHSII)에 참여한 여성 11만7천25명을 평균 14.5년간 추적 관찰해 근력운동과 심혈관질환 발생 간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시작 시 참가자 평균 연령은 각각 66.8세와 48.1세였다.

4년마다 참가자들의 근력운동 시간을 조사하고, TV를 시청한 시간을 좌식 행동의 지표로 평가했다. 주요 심혈관질환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관상동맥우회술,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 등



[롤레스테롤]

[자료 이미지]

이 포함됐다.

추적 관찰 기간에 발생한 주요 심혈관 질환 사례는 5천459건이었다.

분석 결과 근력운동 시간이 많을수록 심혈관질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2시간 이상 근력운동을 하면 운동하지 않는 경우보다 심

혈관질환 위험이 20% 낮았고, 근력운동 시간이 주당 1시간 증가할 때마다 위험이 5% 감소했다.

심근경색과의 연관성은 더 뚜렷했다. 주당 2시간 이상 근력운동을 한 여성의 심근경색 위험은 운동하지 않는 여성보다 44% 낮았다.

특히 주당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과 함께 주당 2시간 이상 근력운동을 하면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45% 낮았고, 여기에 낮은 TV 시청 시간 기준까지 충족할 경우 위험이 가장 낮았다.

체질량지수(BMI)와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심장대사질환 요인을 고려하면 연관성이 다소 약해졌지만 전반적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근력운동과 뇌졸중 위험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 TV 시청 시간을 함께 고려한 분석에서 권고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여성이 일부만 충족했거나 전혀 충족하지 못한 여성보다 주요 심혈관질환과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논문 편집자인 예일대 의대 할런 M. 크럼홀츠 교수는 “이 연구는 근력운동 권고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며 “근력운동은 신체 기능 유지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균형 잡힌 건강관리 습관의 일부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공고 에볼라 누적 사망자 200명 넘어

“국제사회, 에볼라 대응에 1조원 이상 지원키로”

콩고민주공화국(민주공고)에서 에볼라 누적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아프리카CDC)는 민주공고의 에볼라 누적 확진자가 875명으로, 이 가운데 202명이 사망했다고 18일 밝혔다. 치명률은 23%다. 이웃한 우간다에서는 지금까지 19명이 확진됐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아프리카CDC 관계자는 현재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추적 중인 인원은 4천112명으로 전체 추정 접촉자 3만5천명의 약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접촉자의 50~60%를 추적하고 있다는 민주공고 정부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아프리카연합(AU)의 국제보건기구인 아프리카CDC는 민주공고와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 공여국들이 모두 9억1천만달러



콩고민주공화국 북동부 이투리주 르얌파라의 에볼라 치료소에서 한 관계자가 손을 씻고 있다.

(약 1조4천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 8천만달러는 AU 회원국이 제공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날 발표된 금액은 지난 5일 아프리카CDC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5억1천800만달러 규모의 에볼라 공동 대응 계획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당시 두 기구는 11월까지 해당 자금을 에볼라 긴급 조정과 감시, 진단 검사, 감염 예방·통제, 임상 치료, 연구, 물류, 보건서비스 지원 강화 등에 쓸 예

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금액은 아직 각국에서 집행한 비율이 20%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CDC와 WHO, 아프리카 각국 지도자들은 지난 16일 긴급 에볼라 회의에서 앞서 약속된 5억1천800만달러 전액이 4주 안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공여국들이 긴급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프리카 CDC는 전염 확산이 조속히 억제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자원 규모가 15억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유행지역 거주자 발열시 검사



혈액 검사

[연합뉴스TV 캡처]

질병관리청은 22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증가로 인해 주의보 발령 기준이 충족됐다”고 전했다.

말라리아 주의보는 하루 평균 모기 지수(한대의 채집기에 채집된 모기 수)가 0.5 이상인 시·군·구가 3곳 이상 일 때 발령된다.

올해 24주차 감시 결과 경기 파주시(0.8), 인천 강화군(1.0), 강원 양구군(0.7), 서울 구로구(0.5) 등 4개 지역이 그 기준을 충족했다.

올해 주의보는 지난해와 같은 시기에 내려졌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총 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6% 감소했다.

말라리아 환자는 경기도 43명, 인천에 17명, 서울에 8명 등이 각각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주요 추정 감염지역은 경기(파주시·연천군·김포시·고양시·일산서구), 인천(강화군)으로 확인됐다고 질병청은 전했다.

말라리아 전파를 방지하려면 모기 방제와 물림 예방, 빠른 진단·치료가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은 유충 서식지와 성충 휴식처에 종합 방제를 실시해 모기 밀도를 낮추고, 위험 지역 내 의료기관은 37.5도 이상의 발열 환자에 대해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

말라리아를 예방하려면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10월 야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이나 군 복무 등 방문 후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I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세이프타운 롯데 워터 연미타운(한마리)에서 10분 거리

센터빌 / 쉐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fitt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연미타운(한마리)과 쉐들리 롯데에서 각각 5분 거리

진료 과목

- 척추질환
- 좌골신경통
- 오십견
- 관절염
- 요통
- 소아과
- 부인과
- 생리불순
- 생리통
- 입덧
- 두통
- 위장질환
- 면역질환
- 한약처방 조제
- 불임치료
- 중풍
- 안면 신경마비
- 비염
- 알러지 질환
- 수술 및 사고 후 통증
- 노인성 변비
- 질환성 비만
- 추나 요법
- 전기침 요법
- 부항 및 운동 처치 요법
- 테이핑 요법
- 한국산 수제 우황청심환

문의·예약 703.642.6066

웹사이트 hanilacu.com

중의학 박사 연태호 원장

- 상해중의약대학 본과 및 박사 졸업
- 상해 서광의원 정현외과 4년 연수
- 한국 한일한의원 부원장 역임
- 중국 국가급 명의 석시상과 사사

교통사고 보험

- CareFirst
- United Healthcare
- Anthem
- Aetna
- Humana
- Medicare Advantage Plan
-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 Veterans Affairs

※ 보험 플랜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0년을 이어오는 신실함

한일한의원

7345 Mcwhorter Pl. Suite 101, Annandale, VA 22003

“어릴 때 당 함유 음료·주스 많이 마시면 고혈압 위험 높아져”

“대신 통과일 먹으면 고혈압 위험 19~22% 낮아”

어린 시절부터 과일주스나 탄산음료 스포츠음료 등 당 함유 음료를 많이 마시면 성인이 된 뒤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토론토대 테머티의대 바산티 말리크 교수팀은 23일 미국심장협회(AHA) 학술지 서큘레이션(Circulation)에서 미국 청소년 2만5천여 명을 최대 2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어린 시절부터 당 함유 음료와 과일주스를 많이 섭취한 사람은 성인기 고혈압 위험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말리크 교수는 “어릴 때 식습관은 건강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탄산음료 같은 당 함유 음료는 섭취를 제한하고, 과일주스는 100% 과일주스를 적당량만 마시고, 당이 든 음료보다는 통과일 섭취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혈압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이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가족력이나 나이, 성별 같은

일부 위험 요인은 바꿀 수 없지만 식습관과 운동, 흡연 등 생활 습관은 조절할 수 있어 고혈압 예방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연구팀은 미국 전역 간호사 자녀를 대상으로 1996년 시작된 성장기 연구I(GUTS I)과 2004년 시작된 성장기 연구II(GUTS II)에 참가한 9~16세 2만5천749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최대 25년간 추적 관찰했다.

참가자들은 탄산음료, 과일 펀치, 레모네이드, 스포츠음료, 아이스티 등 당 함유 음료와 과일주스, 통과일 섭취 빈도를 정기적으로 보고했고, 연구진은 이후 고혈압 진단 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하루에 당 함유 음료를 2회(회당 355mL) 이상 마신 사람은 일주일에 3회 미만 마신 사람보다 이후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5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료 종류별로는 탄산음료를 하루 1회 더 마실 때마다 고혈압 위험이 23%,



스포츠음료는 3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일주스도 하루 1.5회(회당 237mL) 이상 마신 사람은 일주일에 1회 미만 마신 사람보다 고혈압 위험이 35% 높았다.

과일주스 종류별로는 오렌지주스를 하루 1회 더 마실 때마다 고혈압 위험이 20% 높아졌으나, 사과주스와 다른

주스에서는 이런 관련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 함유 음료나 과일주스를 통과일로 대체하면 고혈압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함유 음료와 과일주스 하루 1회분을 통과일로 대체할 경우 고혈압 위험이 각각 22%와 19%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당 함유 음료를 물이나 우유로 바꾸면 고혈압 위험이 최대 13%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일주스를 물이나 우유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위험 감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같은 관련성은 전체 식사의 질과 신체활동, 흡연 등 다른 위험 요인을 고려한 뒤에도 유지됐으며 이 결과는 총 과당 섭취량 자체보다 과당을 어떤 식품 형태로 섭취하는지가 건강에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 과당 섭취량 자체는 고혈압 위험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지만 당 함유 음료나 과일주스 형태로 마실 경우에는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말리크 교수는 “젊은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도 고혈압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탄산음료나 스포츠음료처럼 어느 정도 건강에 좋은 것처럼 마케팅되는 당 첨가 음료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 초기 몸 숙이는 자세, 유산 위험 높여”

덴마크 연구팀, 임신 80만건 분석 “숙이는 1시간 늘 때 위험 36% ↑”

임신부가 임신 초기에 직장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자주 취하거나 많이 걷는 업무를 할 경우 유산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덴마크 코펜하겐대 한나 뇌르토프트 프라켈 박사팀은 19일 국제 학술지 직업·환경 의학(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에서 취업 여성의 임신 80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임신 초기에 직업상 서 있기, 걷기, 앞으로 숙이기는 모두 유산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고 증가 폭은 각각 3%, 18%,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는 임신 초기 직업상 특정 신체활동이 태반 혈류 공급과 호르몬 조절 등에 영향을 미쳐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는 임신 근로자를 위한 지침에 임신 초기 단계를 포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산은 전체 임신의 약 15%에서 발생하는 흔한 임신 합병증 중 하나다. 부



임신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모의 고령, 흡연, 야간 교대근무, 대기오염·화학물질 노출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직업상 신체활동이 유산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임신 중 직업상 서 있기, 걷기, 앞으로 숙이기와 유산 위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004~2018년 덴마크 취업 여성 47만5천312명의 임신 80만3천829건을 분석했다. 유산 발생률은 전체의 10.1%(8만1천307건)였다.

직업·산업 등록자료의 직업 코드와 활동 추적기(가속도계) 측정값, 전문가 평가를 결합해 임신부가 직장에서 서 있기, 걷기, 30도 이상 앞으로 숙이

기 자세를 취하는 시간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직업상 몸을 30도 이상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취하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유산 위험이 36% 더 높았고, 걷는 시간과 서 있는 시간이 1시간 늘어날 경우에도 유산 위험이 각각 18%와 3% 더 높았다.

특히 앞으로 30도 이상 숙이는 자세는 시간이 길수록 유산 위험이 꾸준히 증가하는 ‘노출-반응 관계’가 확인됐다.

반면 서 있기와 걷기에서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위험이 증가하는 일관된 패턴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조사 직전 1주일새 결혼한 여성에서 유산 위험이 더 크게 증가했다며 결혼이 건강 상태 저하나 임신 중 취약성을 반영하는 지표일 수 있고, 직업적 신체활동의 영향이 이런 여성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연구는 관찰 연구로 직업상 신체활동과 유산 간 인과관계를 밝힌 것은 아니라며 흡연이나 무거운 물건 취급, 야간 교대근무, 화학물질 노출 등 다른 위험 요인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건강칼럼

여름철 좋은 음식과 조심해야 할 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학생들은 방학을 하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건강에 더욱 유의해야 할 시간이다. 특히 음식은 하루만 지나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운동량도 많아지고 안하던 운동을 시작하면서 더위와 함께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고 심하게는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잦아진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면 더위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듣게 된다. 그냥 더워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 다른 원인이 더위와 함께 극대화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뜻한 물이 흘러고 뜨거운 태양 아래 있을 때 심각한 심장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평소에는 붉은색 채소가 도움을 준다. 과일로는 수박, 토마토 등이 좋고 야채로는 당근, 붉은 파프리카가 좋다.

심장이 혈액을 전신에 공급한다면 간은 혈액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간의 혈액저장에 문제가 생기면 눈에 이

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눈이 시리거나 쉽게 피곤해지거나 눈이 충혈이 잘 되는 경우가 그렇다. 이때 좋은 음식은 미역, 굴, 조개, 양파 등이

다. 피를 맑게 해주고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에 시력향상과 백내장에도 좋다.

캠핑이나 바베큐를 많이 하는 시즌인데, 이때 탄 음식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 강력한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적혈구 이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보약으로 맥을 살린다는 의미를 가진 ‘생맥산’이라는 한방차가 있는데 이 한약은 인삼, 맥문동, 오미자로 이루어진 아주 좋은 한약이다.

여름철 많은 땀과 무리한 활동으로 인한 지치기 쉬운 여름철 상비약으로 이 생맥산을 준비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섭취하면 아주 좋다.

문의 703-642-6066



한일한의원 원장

연태홍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 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불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원모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남성암 1위 된 전립선암... "50대부터 PSA 검사로 조기 발견"

대한비뇨기종양학회 "국가 차원 전립선암 조기검진 체계 도입 시급"

전립선암은 이제 국내 남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 됐다. 한때 남성암의 대표 질환으로 꼽히던 폐암과 위암을 제치고 발생률 1위에 오른 것이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가 최근 발표한 '2026 전립선암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전립선암 신규 환자는 2만 3천928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1만1천 95명과 비교하면 10년 새 약 2.2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립선암은 전체 남성 암 발생의 15.0%를 차지하며 폐암(14.5%)과 위암(12.8%)을 넘어 남성암 발생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암 발생 순위에서도 6위에 올랐다.

인구 구조 변화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006년 인구 10만명당 21.1명에서 2023년 30.2명으로 약 43%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고령화 현상을 넘어 전립선암 자체의 질병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립선암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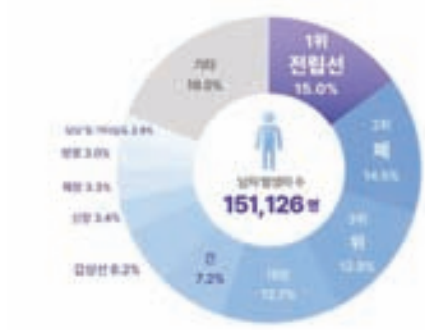
40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50대 이후부터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60·70·80대로 갈수록 환자가 급증하

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 2006년과 비교해 2023년 조발생률(특정 인구 집단에서 새롭게 발생한 환자 비율)은 50대에서 25.2%, 60대에서 51.0%, 70대에서 55.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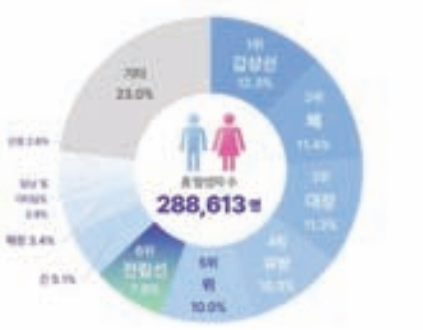
문제는 전립선암이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상당수 환자가 배뇨 이상이나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 하지만 암이 전립선 안에 국한된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다. 결국 무증상 단계에서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가 예후를 좌우하는 셈이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조기 발견 방법으로는 혈액검사인 PSA(전립선특이항원) 검사가 꼽힌다. 검사 방법이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비교적 적어 학계에서는 50대 이상 남성에게 정기적인 PSA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전립선암 검진이 국가 암검진 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개인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검진 접근성에 따라 조기 진단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성암 1위 된 전립선암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제공

실제 팩트시트 분석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준 최상위 고소득층(20분위)의 전립선암 조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91.04명으로, 가장 낮은 7분위(27.03명)보다 약 7배 높았다. 학회는 이런 차이가 질환 자체의 차이보다는 검

진과 의료 이용 기회의 격차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이승환 교수는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 여부에 따라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며, 국제 연구를 통해서도 PSA 기

반 검진의 전이성 암 감소 및 사망률 저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전립선암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조기검진 논의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립선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도 비교적 뚜렷했다.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같은 대사질환을 가진 남성에서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고, 복부비만 남성은 정상군보다 발생률이 1.42배 높았다. 정기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남성은 운동하는 남성보다 발생률이 약 8.3% 높았다.

흡연 역시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30년 이상 장기 흡연자의 경우 전립선암 발생률이 초기 흡연자보다 5.3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정병창 회장(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은 "전립선암은 무증상 단계에서의 정기적인 검진이 조기 발견과 치료의 성과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라며 "국민들이 거주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면역세포 치료제, 새로운 '열쇠 단백질'로 항암 성능 ↑

화학연, 기존 대비 동물실험서 생존 기간 연장 확인

한국화학연구원은 암세포를 찾아가 파괴하는 차세대 세포 유전자 치료제(CAR-T 카)의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유전자 전달체 기술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CAR 면역세포 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NK세포)를 꺼내고, 유전자를 추가해 암세포 추적·공격 능력을 높인 뒤 환자에게 넣는 차세대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치료 효과가 높지만, 생산이 어려워 비싸다.

기존 면역세포 치료제 생산 과정에서는 주로 고양이 바이러스에서 얻은 'RD114'라는 단백질이나 소 돼지 등의 구내염 바이러스에서 얻은 'VSV-G'라는 단백질을 열쇠로 사용해 왔다.

VSV-G는 렌티바이러스성 전달체에서 사용되는 열쇠 단백질이고, RD114는 레트로바이러스성 전달체에 쓰이는 표준화된 열쇠 단백질이다. 연구팀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새



로운 바이러스 종들을 탐색하던 중 원숭이 레트로 바이러스 2형의 일부분인 'SRV2' 외피 단백질에 주목했다.

우리 몸의 T세포나 NK세포 표면에는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ASCT2' 수용체라는 입구가 있는데, 연구팀이 발견한 SRV2 열쇠 단백질은 이 ASCT2 출입문에 완벽히 들어맞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덕분에 면역세포 표면을 잘 열어줘 치료 유전자를 내부로 밀어 넣을 수 있다.

실제 실험 결과, 새로운 SRV2 전달체는 기존 RD114 방식보다 바이러스 자체 생산량이 월등히 높았고, 면역세포에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효율 또한 T세포와 NK세포 모두에서 훨씬 우

수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SRV2를 이용해 만든 CAR-T 세포는 기존 방식 대비 암 공격용 유전자 발현율이 약 20~25% 더 높게 나타났다.

쥐에 백혈병 암세포를 투여했을 때, 치료받지 않는 경우 약 열흘째 종양이 생겨 46일 만에 모두 죽었으나 기존 방식인 RD114 기반 CAR-T 치료제를 맞은 쥐들은 4마리 중 2마리가 33일째에 종양이 생기고 63일에 사망했다.

반면 이번엔 만든 SRV2 기반 CAR-T 치료제를 맞은 쥐는 암세포 성장이 늦춰져 4마리 중 오직 1마리만 41일째에 종양이 생긴 후 71일에 죽었고, 나머지 3마리는 실험 내내 종양이 전혀 자라나지 않았다.

박지훈 박사는 "기존에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유전자 열쇠(RD114)보다 항암 유전자 변형 성능이 우수한 후보를 새로 발굴했다"며 "이번 전달체가 치료제 생산 수율과 항암 효과 개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레르기 비염 진단율 2.5배 ↑

알레르기비염 진단율이 약 20년 사이 2.5배가 되는 등 국내에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알레르기비염의 의사진단 경험률은 2005년 8.3%에서 2024년 20.9%로 올랐다.

의사 진단 경험률이란 의사로부터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천식의 경우 같은 기간 이 비율이 2.1%에서 3.4%로 올랐다. 아토피 피부염의 의사 진단 경험률은 2010년 3.3%에서 2024년 6.6%로 상승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다.

이 질환은 꽃가루, 동물 털, 견과류 등 일반적으로 해롭지 않은 알레르겐(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알레르기 질환이 발생하면 다른 알레르기질환으로 이어지는 '알레르기 행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기침, 가려움, 코막힘 등으로 학업, 업무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피부를 긁어 상처가 생기면 감염 위험도 커진다.

특히 알레르기 질환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에 이르거나 치명적인 영구 장애가 남는 '초급성' 질환이다.

질병청은 국내 알레르기질환 증가에 대응하고자 2008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거점으로 아토피·천식 교육보존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지역 보건소,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일차의료기관, 응급구조사 등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 조기 인지, 상시 관리 방법을 교육·상담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올해 현재 17개 광역 지자체 중 10개 지역에서 11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세계 알레르기 주간(6월 21~27일)을 맞아 경기 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임승관 질병청장은 "알레르기 질환은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초급성 질환으로 돌변할 수 있어 질환을 인지하고 상시 예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질병청은 알레르기 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7/13 ~ 7/17 → 전화 예약 필수!

구인

- 센터빌 오피스 Accounting / Bookkeeping (FT)
-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6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의학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구글, '미나리' 배급사에 투자...주가는 AI 인재 이탈에 급락

스튜디오 A24와 창작 AI 도구 개발 협력

구글이 영화 '미나리'와 '백룸'을 히트시킨 미국의 독립 영화 스튜디오 A24에 7천500만 달러(약 1천153억원)를 투자하며 인공지능(AI) 연구 파트너십을 맺었다.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분야 강자로 자리잡은 구글이 영화 스튜디오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답마인드 AI 부문과 A24가 수년간의 비(非) 독점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영화 제작·배급을 위한 새로운 AI 도구 개발을 목표로 한다.

A24는 2012년 설립된 뉴욕 기반 독립 영화사다. 2022년 아카데미 작품상

을 받은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에 이어 최근엔 공포영화 '백룸'과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마티 슈프림' 등을 잇달아 흥행시키며 이름만으로도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모으는 몇 안 되는 스튜디오로 자리매김했다. 배우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영화 '미나리'의 배급을 맡기도 했다. 2024년 펀딩 라운드에서 기업 가치 35억 달러(약 5조3천795억원)를 인정받았으며, 매출은 지난 2년간 두 배로 늘었다.

이번 계약은 구글이 A24의 영화·TV 라이브러리 등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다. 대신 A24 소속 아티스트들이 답마인드와 협력해 창작 과정에 AI를 접목하는 방식이다.



기술·혁신 업무를 총괄하는 A24의 파트너 스콧 벨스키는 "개발자들이 AI를 영화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홍보해왔는데, 이는 영화인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다"며 "창의적 통제권을 보존하고 위험 감수를 지원하는 더 나은 용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글의 AI 투자 행보에도 불구하고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알파벳 주가는 장중 한때 7.2% 급락하며 1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5.08% 하락한 348.78달러에 마감했다.

핵심 AI 연구인력의 이탈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지난 18일 구글 제미니 AI 모델의

공동 개발자인 노엄 사지어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경쟁사 오픈AI로 이직한다고 밝혔다. 이어 19일에는 답마인드 부사장 겸 엔지니어링 펠로우 존 점퍼가 9년 만에 엔트로픽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발표했다. 점퍼는 단백질 구조 예측 AI 알파폴드의 공동 개발자로, 2024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다.

여기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WSJ 인터뷰에서 AI 시장의 범용화(Commoditization)를 언급하며 "AI 대기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한 것도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

알파벳은 지난해 10월 이후 AI 인프라에 1천410억 달러(약 216조8천억원)를 쏟아부었다. CNBC는 AI 모델이 더 저렴해지고 대체 가능해질 경우 막대한 투자의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역 공공시설을 K팝 공연장으로

문체부, 시설 개선 지원 120억원 투입해 6곳 개선

대중음악 공연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체육 시설 등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총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육·다목적 시설 대중음악 공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선 대중음악 공연을 안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장이 부족해 많은 공연이 체육시설 등에서 열리고 있는데, 전문 공연장이 아닌 만큼 설비나 관람 환경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문체부는 기존에 조성된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연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공모를 거쳐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6개 권역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1천석 이상의 체육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팝 공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목적 시설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업, 지방공기업 학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시설당 최대 20억원의 시설 개선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가변형 좌석, 흡음재 등 소음 방지 및 음향 보완 시설, 무대 조명, 분장실 등 공연 편의시설, 안전 관련 시설 설치·정비 등 대중음악 공연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개선이 이뤄진다. 체육시설의 경우 공연 후 원상 복구를 위한 잔디 등 시설 복구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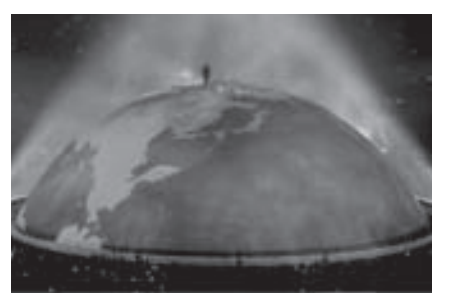
포함된다.

지원 기관으로 선정되면 총사업비의 5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하며, 시설 개선 완료 후엔 의무적으로 유료 공연을 유치하거나 개최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연장 부족 문제를 신속히 완화하고, 국내 대중음악 공연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지역 기반의 공연 문화가 활발해지고 해외 K팝 팬들의 지역 방문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카네이 웨스트 콘서트 취소요구 ↑

프랑스·이탈리아 공연도 취소



카네이 웨스트 네덜란드 공연. [AFP-연합뉴스]

반(反)유대주의 발언을 일삼아 온 래퍼 예(Ye 본명 카네이 웨스트)의 콘서트를 놓고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공연 취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오르티스 존스 텍사스주(州) 샌안토니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혐오 발언과 반유대주의 발언을 한 사람이 알라모돔처럼 시 재정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공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절대 안 되고,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인 7월 4일에는 더욱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신보 '볼리' 발매 후 투어 형식의 콘서트에 나서기로 한 예를 겨냥한 발언이다.

릭 스콧(공화·플로리다) 연방 상원의원도 이날 말 탬파에서 예의 공연이 열리는 것을 두고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탬파 스포츠 당국 이사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레토릭(수사법)을 쓰는 예의 행사를 납세자 돈으로 지원하는 스타디움에서 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4월 영국 정부가 예의 입국을 불허했고 이탈리아와 폴란드, 프랑스 등지의 공연도 줄줄이 취소된 데 이어 미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예는 과거 유대인 혐오와 나치 찬양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그는 2022년 "유대인들에게 '데스콘 3'(death con 3 데프콘에 빗대 혐오감을 드러낸 발언)을 가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고, 지난해 5월에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패망한 지 80주년을 맞아 나치즘 찬양 신곡인 '하일 히틀러'를 공개해 세계적인 반발을 일으켰다.

또 엑스(X 옛 트위터)에 "나는 히틀러를 사랑한다", "나는 나치다"와 같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올해 1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면 광고를 내고 "나는 나치도 아니고 반유대주의자도 아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예는 자기 행동이 양극성 장애 1형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에도 한 차례 사과했다가 2025년 다시 이를 철회하고 나치 찬양에 나서는 등 오락가락 행보 때문에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30일 출소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사진)이 오는 30일 출소한다. 김호중 소속사는 23일 "김호중이 최근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12월에도 성탄절 특

사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당시에는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서 11월로 예정됐던 만기 출소일보다 5개월 먼저 사회로 복귀하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지호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최지호, MD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Ace Acupuncture 571-438-4644
- 치료 마사지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남자 간호보조원 (MA) 채용합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만순의 약이 되는 K-푸드 바다 흐름 품은 여름의 양생, 멍게

바다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생명이 순환하며 끊임없이 흐른다. 그 흐름 속에서 태어나 한 자리에 붙어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 바로 멍게다. 사람들은 그 독특한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린다고 말하지만, 멍게는 바다의 기운을 가장 농축해 담아낸 식재료다. 입에 넣는 순간 퍼지는 짭짤함과 씹살함, 그리고 뒤따르는 은은한 단맛은 자연의 순환을 그대로 보여주는 맛의 흐름이다.

◇ 멍게의 영양학

양생에서 음식은 영양을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몸의 기(氣)를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 멍게는 성질이 차고(寒), 맛은 달고 시며(甘酸), 간과 신장으로 들어간다. 몸속의 열을 식히고 부족한 음(陰)을 보충하는 작용을 한다는 의미다. 현대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몸속 열이 쉽게 쌓이고 진액이 부족해진다. 이때 멍게는 바다의 차가운 기운으로 몸의 균형을 맞춰준다.

특히 멍게의 보습 작용은 중요하다. 음이 부족해지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멍게는 이러한 상태를 완화하고 체내 진액을 보충해준다. 또한 간과 신장을 보하는 작용은 생명력에도 연결된다. 도교 양생에서는 신장을 '생명의 뿌리'라고 했는데, 멍게는 이 뿌리를 보강하는 음식으로 여겨졌다.

현대 영양학적으로 보아도 멍게는 흥미로운 식재료다. 100g당 약 78kcal로 열량이 낮고 단백질은 풍부하며 지방은 적다. 특히 타우린과 글리코겐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 타우린은 간 기능을 도와 해독 작용을 촉진하고, 글리코겐은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전환돼 몸의 활력을 높인다. 예로부터 바닷가 사람들은 멍게를 먹고 나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말했다.

또한 멍게에는 바나듐이라는 미량 원소가 들어 있다. 이 성분은 인슐린 작용을 도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 당뇨와 같은 현대 질환 예방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더해 EPA 같은 불포화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 또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최근 주목받는 성분 중 하나는 플라스마로겐이다. 이는 뇌세포 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로, 신경 기능을 보호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연구 단계이지만 전통적으로 멍게를 먹으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했던 경험과도 맞닿아 있다. 옛사람의 경험이 과학으로 조금씩 설명되고 있는 셈이다.

멍게의 또 다른 특징은 강한 항산화 작용이다. 멍게에 포함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노화 방지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피부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역시 실제 생리학적 변화와 이



통영 멍게와 멍게 비빔밥.

[연합뉴스]

여져 있다. 우리 식문화에서 멍게는 오랫동안 결집음식으로 자리해왔다. 회를 기다리는 동안 나오는 작은 한 접시였지만 그 안에는 바다의 정수가 담겨 있었다. 이후 통영 지역에서 멍게비빔밥이 등장하면서 멍게는 밥상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밥 위에 올려진 멍게와 채소, 김, 참기름이 어우러질 때 오색의 조화와 함께 음양의 균형이 완성된다. 자연과 인간이 한 그릇 안에서 만나는 셈이다.

도교에서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최고의 양생으로 본다. 멍게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흐르는 물속에서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간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버리고 에너지를 아껴 생존에 집중한다. 이 모습은 인간에게도 교훈을 준다. 불필요한 욕심을 줄이고 필요한 것만 취하는 삶이 건강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멍게를 먹는 방법 또한 중요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신선한 멍게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이다. 이때 매콤한 맛은 차가운 성질을 보완해 소화를 돕는다. 채소와 함께 비빔밥으로 먹으면 기의 흐름도 더욱 부드러워진다. 다만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냉한 사람은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하며 하루 5~6개 정도가 적당하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멍게의 향이다. 많은 사람이 이 향을 '바다 냄새'라고 표현한다. 실제로 멍게의 향은 바다 환경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깨끗한 바다에서 자란 멍게일수록 향이 맑고 깊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어떤 환경을 선택하는지와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멍게는 해산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 안에는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지혜, 인간의 건강이 함께 담겨 있다. 도교 양생에서는 좋은 음식은 몸을 살리고 바른 음식은 삶을 바꾼다고 했다. 멍게 한 접시 속에 담긴 바다의 기운을 느끼며 사람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된다.

결국 양생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일이다. 초여름 바다에서 가장 맛이 오르는 멍게는 그 자체로 계절의 메시지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에 필요한 기운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자연이 주는 답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건강의 시작이다.

◇ 손자방법으로 바라본 멍게 요리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형을 아는 것이다. 손자방법에 보면 "지형(地形)은 땅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험함과 평탄함을 알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전쟁의 원칙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바다의 지형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멍게다. 멍게는 떠나니지 않는다. 움직이지도 않는다. 흐르는 물결과 바위의 형세를 읽고 그 자리에 붙어 자신의 삶을 완성한다. 지형을 읽어 스스로를 낮추고 자리를 지키는 병법의 고수라 답았다.

도교에서는 이를 무위(無爲)라고 한다. 억지로 움직이지 않고 자연에 맡기는 것이다. 멍게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가장 깊은 흐름을 얻는다. 물이 흐르는 방향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필요한 영양을 받아들인다. 인간 역시 삶의 지형을 거스르지 않을 때 비로소 건강과 평안을 얻는다.

멍게를 회로 먹는 것은 이 '지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칼로 껍질을 열고 바다의 향을 그대로 입에 넣는 순간 사람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과 만난다. 짭짤함과 단맛, 그리고 바다의 기운이 함께 어우러진다. 입안에서 펼쳐지는 복합적인 맛은 몸의 감각을 깨우고 정체된 기를 움직인다.

비빔밥은 또 다른 지형이다. 밥이라는 평지 위에 멍게와 채소가 어우러진다. 각기 다른 색과 맛이 섞이며 하나의 조화를 이룬다. 평지에서 군대를 운용하는 것처럼 각각의 역할이 분명하면서도 서로를 해치지 않는다. 몸 안에서는 음과 양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며 균형을 이룬다.

젓갈은 시간이라는 지형을 통과한 음식이다. 소금에 절여 발효되는 과정에서 멍게는 더욱 깊은 맛을 얻는다. 짧고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불필요한 것은 사라지고 본질만 남는다. 발효된 멍게는 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 발효의 힘으로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산적은 불의 지형이다. 멍게를 살짝 익혀 꼬치에 꿰어 먹으면 생것과는 또 다른 깊이가 드러난다. 불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익힘을 통해 차가운 성질이 완화되고 소화가 약한 사람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찜과 국은 물의 지형이다. 멍게를 넣어 끓인 국물은 바다의 깊은 맛을 그대로 담아낸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포용한다. 피로가 풀리고 막혀 있던 기운이 부드럽게 흐른다. 보이지 않는 곳이 안정돼야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쟁의 후방과도 닮았다.

노자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고 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며 낮은 곳에 머문다. 멍게의 삶은 이 말의 구현이다. 스스로를 낮추고 흐름에 맡기며 가장 깊은 맛을 만들어낸다. 인간이 멍게를 먹는다는 것은 이 철학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의 지형이다.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평탄하다. 중요한 것은 그 지형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멍게처럼 자신의 자리를 알고 흐름을 따르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조용하지만 깊게 삶에 스며들어 몸의 균형과 시간을 바꿔놓는다.

최만순 음식칼럼니스트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홍명보호 '아프리카 징크스' 넘을까

남아공 상대로 32강행 도전
역대 아프리카 팀 상대 1승 1무 2패
모두 선제 실점, 클린시트는 없어

홍명보호가 '아프리카 징크스'를 깨고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 2위 32강 진출을 이루려 한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5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과달루페의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남아공을 상대로 대회 조별리그 A조 마지막 3차전을 치른다. 1차전에서 체코에 2-1 역전승, 2차전에서 개최국 멕시코에 0-1 석패를 당한 홍명보호는 일단 조 1위 32강 토너먼트 진출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멕시코가 2승으로 1위를 확정해줬다.

여전히 한국은 남아공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 자리를 꿰차고, 지더라도 조 3위 32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유리한 자리에 있다. 하지만 남아공전에서 자칫 패한다면 경우에 따라 4위로 추락해 탈락할 수도 있다. 같은 시각 멕시코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체코가 멕시코를 잡는다면 체코가 2위, 남아공이 3위에 오르기 때문이다.

비기는 것을 목표로 경기에서 패하는 사례는 허다하다. 홍명보호가 남아공전에서 반드시 승리를 노려야 하는 이유다.

남아공은 국제축구연맹(FIFA) 실시간 랭킹이 A조 팀 중 가장 낮은 61위인 최약체다. 한국(23위)보다 38계단 아래다. 하지만 한국은 아프리카 팀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에 방심은 금물

이다. 역대 월드컵에서 한국은 아프리카 팀을 4차례 만나 1승 1무 2패의 열세를 보였다.

2006년 독일 대회 토고전에서 2-1로 이긴 게 유일한 승리다. 이후 20년 동안 이기지 못했다. 2010년 남아공 대회에서 나이지리아와 2-2로 비겼고,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는 알제리에 2-4로 참패했다.

역대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을 달성한 2022년 카타르 대회에서도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에선 2-3으로 패했다.

한국은 이 4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허용했고, '클린시트'는 기록하지 못했다. 홍 감독도 A매치에서 아프리카 팀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브라질 월드컵까지 1년여간 A대표팀을 이끈 '홍명보호 1기' 때 알제리전 패배를 포함해 아프리카 팀 상대 1승 3패를 기록했다. 이번 '홍명보호 2기'에서는 1승 1패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11월 가나와 홈 평가전에서 1-0으로 이겼으나 지난 3월 유럽 원정으로 치른 코트디부아르전에선 0-4로 충격패했다.

한국은 아프리카 팀의 강건한 체격과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엿박자를 섞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경험이 많다. 유리한 고지에서, 조 최약체를 상대하는데도 팬들이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다.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 손흥민이 헤더슛을 하자 마스크가 떨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로서는 '이른 시간 득점'을 노릴 필요가 있다.

남아공은 0-2로 완패한 멕시코와 1차전에서 전반 9분 만에 훌리안 키뇨네스에게 선제 결승 골을 내줬고, 1-1로 비긴 체코와 2차전에서도 전반 6분 미할 사달레크에게 선제골을 허용했다.

남아공은 올해 1월 끝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도 16강에서 탈락할 때까지 4경기에서 늘 전반에 실점했다.

남아공 수비라인 공략을 위해 지난해 6월 K리그1 울산 HD가 남아공 대표 다수가 속한 마멜로디 선다운스와

맞붙은 2025 FIFA 클럽 월드컵 경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아공의 양 측면 주전 수비수로는 마멜로디 선다운스 소속의 오브리 모디바와 콜리소 무다우가 나선다. 골키퍼도 같은 구단 소속의 론웬 윌리엄스다. 무다우와 윌리엄스는 당시 울산전에서도 선발 출전했다. 이 대회에서 울산은 '1승 제물'로 지목되던 마멜로디에 0-1로 패한 게 치명타가 돼 조별리그 탈락했다.

남아공의 주축 미드필더 테보호 모코에나와 공격형 미드필더 탐바 즈와

네(이상 마멜로디)가 경고 누적과 각각 1차전 퇴장으로 3차전에 나서지 못하는 건 홍명보호에 호재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인 만큼, 홍 감독은 이번에도 최정예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할 거로 보인다.

다만, 1·2차전에서 원톱으로 선발 출전해 수비수를 끌고 다니며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은 잘 수행했으나 득점하지는 못한 손흥민(LAFC)의 선발 출전 여부와 포지션 배치를 두고는 홍 감독이 마지막까지 고민할 수 있다.

'스쿠벌을 잡아라' ...다저스·양키스·애틀랜타 치열한 눈치싸움

반환점을 눈앞에 둔 2026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최대 이슈는 특급 투수 태릭 스쿠벌(29·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을 둘러싼 트레이드설이다.

소속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아메리칸리그(AL) 중부지구에서 하위권으로 처지면서 에이스 스쿠벌을 보내는 대신 젊은 유망주들을 영입해 재정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선수

(FA) 자격을 획득하는 스쿠벌은 여차피 디트로이트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사이영상을 받은 스쿠벌은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탐낼 수 밖에 없는 투수다. 스쿠벌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팀 중 하나는 '신약의 제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다.

월드시리즈 3연패에 도전하는 다저스는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블레이크 스넬과 타이러 글래스노우 등 선발투수들이 부상 자명단(IL)에 오른 상태다.

마이너리그 시스템이 뛰어난 다저스는 유망주도 풍부해 디트로이트와 트레이드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뉴욕 양키스도 스쿠벌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AL 동부지구 1위인 양키스는 최근 에이스로 자리 잡은 캄 솔리틀러와 부상에서 복귀한 게릿 폴에 스쿠벌이 가세한다면 최강의 선발진을 구축하게 된다. 양키스는 다저스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스쿠벌 트레이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태릭 스쿠벌 [연합뉴스]

NL 동부지구 1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도 유력한 후보다. 크리스 세일 말

고는 믿을만한 선발투수가 없는 애틀랜타는 다저스나 양키스보다 더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

이런 팀들의 구애에도 최근에는 디트로이트가 스쿠벌을 내보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시즌 초반 지구 꼴찌로 처졌던 디트로이트는 6월 들어 11승 6패로 상승세를 타면서 4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지구 1위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와 승차는 5월 말 11.5게임에서 23일(한국시간) 현재 7.5게임으로 줄었다.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교통사고 전문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두통, 편두통, 경부통, 요통, 오십견, 좌골신경통,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근섬유통 등)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전문
- 구안와사 (안면마비)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위염, 소화불량, 역류성식도염 등), 순환장애, 수족냉증
- 불면증, 우울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증상, 전립선질환, 발기부전
- ADHD (과잉행동장애), PTSD (외상후 증후군)
- 수술후 후유증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종의과 졸업
- 중국 국의대사(国医大师) 연정화(颜正华)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학석사, 박사
- 임상 26년 경험



한국산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홈페이지: WWW.CHAIORIENTALMEDICINE.CLINIC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전화 예약환자에 한함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 센터빌
- 찬틀리
- 헌 돈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보험
- 메디케이드
-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봐스 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교통사고

SHK FIRM
ATTORNEYS-AT-LAW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6월 구인 광고

귀하의 성공을 돕는 미디어 중앙

미디어 중앙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옵니다."

구인

스파에서
바디 필링하실
여자 직원 구함

유 경험자,
무 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Stafford, VA

(540)368-9699

P & 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매달 지출되는 P & C 보험료, 낭비 없이 꼭 잡으십시오!"

자동차 · 주택 · 비즈니스 보험
최적의 보험료로 최고의 보장을!

1. 자동차를 운전하시나요?
2.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나요?
3. 새 집을 장만하셨나요?

미국 내 주요 보험사들의 보험료를 한눈에 비교하여 불필요한 프리미엄은 빼고, 보상 범위는 확실하게 넓혀드립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까다로운 클레임 처리까지 에이전트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취급 상품

- 자동차 보험: 안전운전자 할인, 멀티 플랜 추가 할인
- 주택 / 콘도 보험: 화재, 도난, 재해로부터 내 재산 완벽 보호
- 사업체 / 종업원 상해: 리스크 분석을 통한 맞춤형 비즈니스 패키지

기존 보험 증권의 "가격 비교 쿼트(Quote)만 받아보셔도 보험료가 절약됩니다!"

견적 문의: 703-223-6961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이메일: ksb100675@gmail.com P&C 보험 전문가 Paul Kim (수봉)

금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45,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HYUNS HOMECARE
Senior Services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 (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근무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대우 보장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hr@worldbankcard.net

한국신사복전문점 **젠틀맨**

- 골프바지/티셔츠/남방/와이셔츠
Buy2 Get1 Free \$100 (단 1장은 \$50)
- 봄·여름 점퍼 \$100
- 봄·여름 콤비 (자켓) \$150
- 춘·하·추·동 신사복 완비

취급 품목 양복/콤비/점퍼/와이셔츠/티셔츠/신사바지
넥타이/벨트(가죽)/양말

한국신사복 알베르토 세리니 571-481-1020
7720 Royston St. Annandale, VA 22003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플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미디어 중앙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미디어 중앙으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미디어 중앙 생활안내 Classified

미디어 중앙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좌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 구인/사무/직원모집

함께 세일즈 하실 팀원 구합니다.
-메릴랜드 주정부 LED 교체 프로그램
-메릴랜드 BGE, PEPCO 서비스 지역
-기본적인 영어 소통 가능자
-Sales Training 제공 및 Transportation 지원 가능
-연 10만불 이상 충분히 가능
문의: 410-599-7000

H-Mart Wheaton 매장 직원 모집
모집부서: Customer Service
근무지: 워튼점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301-942-5071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703-598-3316/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albert@w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간병인
-건강보험 및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443-288-6677

기타 구인

픽업 스토어 4개 가지고 있습니다.
빨래 깨끗이 빨아줄 공장을 찾고 있으며, A급 스파맨 필요하신분 연락 바랍니다.
703-966-9072

베이비 씨더 구함
입주하셔서 6개월된 아기 돌봐주실분
근무지: 피츠버그, PA
문의: 703-967-3963

한식당 해반(HYEBAN)에서 직원 모집
-주방 쿡/헬퍼/웨이츄리스(숙식제공)
Tel: 443-420-3096

메릴랜드 하노버에 위치한 무궁화시니어 의료 복지관에서 직원 구함
-풀타임 운전하실분
-주방 보조
410-850-4059

중고 매매/기타

명품 중고 골프 클럽 싸값에 팝니다.
703-966-9072 (Kim)

무빙 세일합니다.
고급 리빙룸 셋, 책장, 도자기, 고급 일본 접시, 노래방 기계, 금고, 병풍등등
301-801-9921

케이 퍼플에서 간병사 교육합니다
기간: 7/13 - 7/17 전화예약 필수
571-297-4747 (VA)
301-966-7000 (MD)

현대 산타페 스포츠 2.0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싱글/타운/방 렌트

BWI 공항 근처 싱글룸 지하 전체 렌트
출입문 별도
240-393-5530

저먼타운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룸 2층
방하나 렌트, 인터넷, 침대, 가구완비
301-538-1438

저먼타운 싱글룸 워크 아웃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2, 부엌, 거실, 욕실, 출입문 별도
\$1,4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버틀스빌 싱글룸 1층 렌트
(콜롬비아에서 15분, 엘리컷시에서 20분
거리) 방2, 화1.5, 욕실, 주방, 세페인트, 새
가전제품, 프리파킹,
모든것 포함 \$1,900
443-983-8100

싱글하우스 베이스먼트 방 렌트
Arundel Mills Live Casino 뒷편
프라이빗 부엌, 세탁실, 인터넷, 유포, 쾌적한
환경, 편리한 교통, 금연 필수, 남자분 환영
804-381-1552

부동산 매매

For Sale by Owner MD Jessup
Builders Model
55+ Condo: 4bd 3.5bt, 2 car garage
3,200ft, near 95 & 32 \$545,000
Phone: 443-838-5458
E-mail: vrupen@gmail.com

사업체 매매

**KBBQ & HOT POT 급매 \$245,000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최근 리모델링
240-988-6868

**미장원 급매
5일 영업, 월순수익 \$6,000,
알링턴 VA, 좋은 동네, 발전 가능성 많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박

1. 애난데일 실내골프장, 최적의 장소
3천 & 6천 sf. Safeway 건너편, 높은 천정
2. 애난데일 식당. Buyer가 자리 찾고 있음.
2nd Generation 비즈니스 원함,
타이 음식점 예정
3. Falls Church VA 차킨 프랜차이즈 식당
\$20만
4.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근처
Bakery or KBBQ 들어갈수 있는 자리,
리스 space 5,700sf, 1층
5. Alexandria VA 포토맥야드 태권도장한
자리, 2,700sf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DC 상업용 빌딩 w/ 컨비니언 스토어
\$1.95M 코너, 단독 빌딩 유니언마켓
근처, 계속 개발중인 지역, 강추!
2. 애난데일 236 대로변, 2층 25,000sf
리스 스페이스, Bakery, 식당, Beauty
store, 실내골프 등, Great parking
3. 급구! 애난데일에 위치한 식당을 찾는
바이어 대기중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스시집 매매
워싱턴 DC, 주6일 오픈, 월순수익 2만 5천
렌트 \$5,200 (Com Tax 포함)
2. 일본 식당 매매
MD 그린벨트 근처, 월순수익 3만 5천,
주매상 3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박

성업중인 세탁소(Dry Cleaners) 매매
- 최적의 입지: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
센터내 위치
- 30년 안정 운영, 많은 단골 고객 확보
5마일내 경쟁업체 무, 무한한 성장 잠재력
- 완벽한 설비 시설
- 매대가 협상 가능, 방문 환영
- Manassas, VA
(문의) 한국어: 703-678-9790
영어: 703-499-2466

비어와인 컨비니언 스토어 매매
- 월 1만 5천 순이익
- 매대가 15만 + 인벤토리
- 메니지먼트 가능
- 피츠버그, VA
문의: 703-229-9702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 이발소 매매
- 고정 단골 손님 많음
- 월세 \$2500, 월순수익 \$6천 이상
- PT 일하실분 구함
문의: 703-907-9541 (문자 요망)

40년 성업중인 테일러샵 매매
은퇴 관계, 좋은 조건, 리치몬드 중심지
문의: 703-937-7261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 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 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모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컷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2,750 sf
문의: 703-534-4989

버지니아

구인/사무/직원모집

케어피플 홈헬스에서 직원 구함
- Accounting / Bookkeeping (FT)
- 센터빌 오피스
-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치과 조무사, 리셉셔니스트 구함
월, 화, 목, 금 8시 - 5시 근무
무경험자 시간당 \$20
naturadent@gmail.com

첸들리 롯데마트안에 위치한 금산 인삼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구합니다.
- 판매하실 여자 직원
- 주 40시간, 주말 가능 하신분
문의: 201-923-3886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e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2014a@gmail.com

첸들리 러브랜드 홈헬스 사무직 직원 구함
- 경력 무관
- 이중언어 필수, 풀타임 가능자
- 건강보험, 401k, 유급 휴가 제공
문의: 703-657-0944
이력서 이메일: account1@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첸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법률 보조원 구함. 타이슨 코너
이력서: admin@eb3recruit.com

현스 홈케어와 함께 하실 분을 찾습니다.
- 간호사(RN, LPN)
- Full or Part Time 가능
- 재택 근무
문의: 703-507-2492
hyunshomecare@gmail.com

WBS에서 사무직으로 함께 일하실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경험자 우대, 체계적인 교육과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hr@worldbankcard.net

Bristow, VA에 위치한 Commercial
Remodeling 회사에서 Project Manager
구함. Auto Cad 경험 필수
703-507-3495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Office Maintenance
Van Driver
은퇴하신분 환영
이력서 제출 bongL@ccdc.edu
www.ccdc.edu

굿피플 USA 사무행정/사업관리 직원모집
비영리 단체 경험자, 한/영 능통자 우대
풀타임 (급여는 경력별 협의)
근무지 McLEAN, VA, 이력서 / 자기소개서:
info@goodpeopleusa.org

탐여행사 미동부 투어 가이드 사무직원 구함
- 센터빌 지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info@toptravelusa.com
703-543-2322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풀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험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다.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안과에서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함
다. 이중언어 가능자
이력서: dceyclinic@yahoo.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성공 비즈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T. 703-281-9660

매매

**40년 성업중인
테일러샵**

- ★ 은퇴관계 매매
- ★ 좋은 조건
- ★ 리치몬드 중심지

문의: 전화 or 문자
703.937.7261

직원 구함

**센터빌, 첸들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보내실 곳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미디어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 렌트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미디어 중앙

리셉서니스트(이중언어 필수)를 모집합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accounting@lbiniversal.com

홀케어(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타임 직원 구함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페어팩스 Sushi Friends Hashi 에서
 스시 웨프 구합니다.
 (영어 필수,페이우대)
 703-628-9168 (문자 요망)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홀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계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
 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티어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슈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파타임
 ▶571-991-4172

세탁/얼터레이션

픽업 스토어 4개 가지고 있습니다.
 빨래 깨끗이 빨아줄 공장을 찾고 있으며,
 A급 스파맨 필요하신분 연락 바랍니다.
 703-966-9072

알링턴 클리너에서 함께 일하실 카운터
 직원 구합니다. (풀/파타임)
 571-244-4912

기타구인

베이비 씨터 구함
 입주해서 6개월된 아기 돌봐주실분
 근무지: 피츠버그, PA
 문의: 703-967-3963

스파에서 바디 필링 하실분 구함
 -여성분, 유경험자, 무경험자도 환영
 (트레이닝 가능)
 -스테포드, VA
 문의: 540-368-9699

가사도우미 급구 - 장기 근무 환영
 요리·세탁·청소 등 기본 가사
 오후 12시-7시
 McLean 깨끗한 가정집
 안정적 장기근무 / 매우 좋음
 연락: 703-795-1896

밀워키 캐비닛 공장서 목수 구합니다.
 델레스 공항 근처(Dulles, VA)
 -가구 페인트/스테인 경험자
 -가구 제작 헬퍼/ 주니어 목수
 성실하고 취업 결격사유 없는분
 703-859-2499 (문자/전화)

애견 그루밍 선생님 구함
 알렉산드리아, 레스톤 지역
 givingtree.alison@gmail.com
 ▶문의: 571-660-8182

B3 플라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존 메케닉
 ▶703-220-1400

InCourage Martial Arts 에서 태권도 사범
 모집합니다.
 보크, 페어팩스, 애쉬번, 퍼셀빌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571-243-7027 (text 가능)

No. 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싱글/타운홈 렌트

비엔나 타운홈 \$3,100
 방3, 화장2, 전체 마루, 옥톤 하이스쿨, Mosaic
 EL, RT 123/29/50/88
 ▶571-239-6054 (문자)

페어팩스 코스코 옆 타운홈 \$4,000
 방3, 화장2.55, 차고2, 2019년, 7월1일 입주
 가능, RT 66/50/286/29
 ▶571-239-6054 (문자)

센터빌 싱글홈 지하전체 워크아웃,
 ▶571-239-6054 (문자)

출입문 별도, 모두 독립적임, 주방, 세탁 설비
 완비, 올 리모델링, 주차공간충분, 펫 가능
 571-214-0404

페어팩스 메리필드 지역 타운하우스 렌트
 방4, 화장3,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주차2
 \$2,400
 571-229-7124 (문자 요망)

센터빌 타운홈 렌트
 방3, 화장2.5, 밝고 환한 편리한 타운홈, 업데이트
 이트한부엌 (그레닛 카운터탑, 새 냉장고), 새 마루,
 새 페인트, 잘 수리된 화장실, 펜스 있는 뒷마당,
 독점 파킹 2개, Visitor 파킹 다수, 교통 편리
 ▶703-477-3114

콘도 렌트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렌트합니다.
 방2, 화장1, 7월1일 입주 가능
 571-277-7758

업그레이드된 밝고 환한 콘도 \$1,700
 방1, 화장1, 새 나무 마루, 넓은 리빙룸, 나무가
 보이는 경치, 편리한 1층, 새 페인트, 넓은 새
 발코니, 물값 & Gas값 포함, 교통 편리
 Falls Church, 애난데일 10분
 ▶703-477-3114

센터빌 콘도 렌트 \$2,000
 방2, 화장2, 나무마루, Granite Counter Top,
 탁트인 구조, 업데이트된 부엌과 화장실,
 넓은 리빙룸, 발코니, 밝고 환한 콘도, 롯데 마
 트 근처, 교통 편리
 ▶703-477-3114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장2, 차고1,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방 렌트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장1, 주차2, 모든 관리비 포함
 703-863-0321

스프링필드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 인터넷, 간단 취사,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571-286-2439

애난데일 CVS 뒤 싱글홈 원룸스타일 방 렌트
 출입문 별도, 샤워실, 냉장고, 인터넷, 가구,
 취사가 가능, 파킹넵,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애난데일 아웃 스텝 하이스쿨 근처 큰 싱글홈 베이
 스먼트 전체 렌트 \$1,925
 큰방1, 화장1, 거실, 부엌, 가구 완비,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703-362-8790

애난데일 한강 식당 근처 큰 싱글홈 방 들
 렌트, 교통 편리, 주차 넵넵
 703-395-4380 (메세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가 가능, 직장인/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시루 앞 방 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가 가능, 직장인/여성분 환영
 703-973-8123

게인스빌 싱글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워크아웃, 방2, 풀베스, 리모델링된 주방,
 새 세탁기/건조기, 새 페인트, 새 플로어,
 여성분 환영
 703-501-4478

애난데일 원룸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개인 주차
 571-232-6052

헤이마켓 도미니언 밸리 리젠시 골프장 안에
 있는 싱글홈 2층 전체 렌트
 방1, 리빙룸, 풀베스, 골프장 회원 가능
 문자로 연락 바랍니다.
 516-242-8466

애난데일 방 하나 렌트합니다.
 간단 취사, 유포, 가구 포함
 703-677-1889

센터빌 (New Braddock Road) 타운홈 방 하
 나 렌트, 남자분 환영, 저녁 6시 이후 전화 요
 703-606-005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타운홈 방 하나 렌트
 인터넷,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욕실 별도,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30-7121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 방, 화장실, 마루,
 파킹, WIFI, 학생/여성분 환영
 571-239-6054 (문자)

애난데일 싱글홈 방 렌트,
 495, 노바 & 조지메이슨 6분, 가구 일체,
 인터넷, 금연자, 여자분 환영, 주차 넵넵
 571-205-0903

로튼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 전체 렌트
 방2, 거실, 부엌, 화장, 세, I-95 1마일 거리, 가
 족 환영, 출입문 별도
 703-774-4939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
 고 조용한 윗층 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
 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K마켓 뒤 싱글하우스 방 하나 렌트
 주차 넵넵
 703-965-2343

센터빌 H마트 근처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2, 거실, 욕실, 가구 완비, 유포, 워크아웃
 703-835-0945

애난데일 한강 뒤 방 하나 렌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571-355-922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방1, 화장1 렌트
 가구 완비, 간단 취사, 유포, 엘리베이터
 703-989-0103

센터빌 H마트 근처 타운하우스 지하 전체 렌
 트, 엔드 유닛, 출입문 별도, 욕실 완비, 유포
 (3시 이후 전화요망, 또는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703-474-5590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에버그린 오피스 사무실 렌트
 월 \$500
 문의: 703-677-1889

워싱턴 DC 중심가가게 임대
 \$4,000/월
 그로서리, 컨비니언스 스토어, 커피숍
 문의: 703-231-5572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일반 오피스
 또는 병원, 한의원도 가능, 즉시 입주 가능,
 390sf, \$24/sf/yr, 3-10년
 연락처: windmill7000@gmail.com

센터빌 던컨 도넛 뒤 오피스 렌트
 1층, 1250sf, 주차다수, 즉시 입주 가능
 703-861-9923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장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부동산 매매

1. 센터빌 타운홈 \$739,000
 엔드 유닛, 2 car garage 전면 벽돌, 스카이라
 인이 보이는 멋진 경치, 넓은 부엌과 거실,
 나무마루, 넓은 안방과 화장실, 워크아웃 베
 이스먼트, 넓은 욕, 펜스 있는 뒷마당,
 Visitor parking 다수, As is condition
 2. 애난데일 오피스 매매 \$280,000
 전체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 밝고 환한
 사무실, 변호사, 부동산, 미장원, 닥터 오피
 스, 교통 편리, 넓은 주차장, 애난데일 중심가
 ▶703-813-8949

1. 페어팩스 뉴타운 홈 매매
 2. Langley high school 학군 지역 주택 매매
 (703) 677-1889

1. 센터빌 중장교 회 근처 싱글 \$1,050,000
 방3, 화장3, 5 에이커 전원 주택, 최신 수영장
 2. 레스톤 싱글홈 \$855,000
 방7, 화장3.5, 워크아웃 부엌, 차고 2
 타운센터/메트로 근처
 3. 헌돈 럭셔리 타운 \$850,000
 방3, 화장3.5, 차고 3
 ▶703-489-6926

1. 헌돈 콘도 \$579,000
 2022년 새 콘도, 방2, 화장2, 차고1, 새 집 같은
 컨디션, metro 인근
 2. 센터빌 스톤게이트 콘도 \$390,000
 방2, 화장2, 콜린 파우치, 센터빌 고, 교통 중심
 3. 애쉬번 럭셔리 타운 \$935,000
 방4, 화장3.5, 차고2, 최고 학군, 2015년,
 3,660sqft, RT50/66/267, 델레스 공항,
 교통요지
 4. 알링턴 야미네이비 콘도 \$345,000
 방1, 화장1, 2000년, 700sqft, 디씨 근접 교통
 요지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앗간/반찬/잔치음식 전문점

oh! Market 낙원떡집

케이팅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Coming Soon

- 각종 떡, 단체 도시락, 김밥 주문 받습니다.
- 김밥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 각종 반찬 만들어 드립니다.
- 참기름 짜드립니다. (기계 있음)

• 각종 행사 • 백일/돌잔치/생일 음식
 • 잔치 음식 • K-Food & Hibachi Food
 • 반찬 전문

"매장 식사 가능"

703-505-7766
 7412 Stream Walk Ln.
 Manassas, VA 20109 (Oh! Market 안에 위치)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 | |
|-------|-------|
| 1 BOX | \$100 |
| 2 BOX | \$200 |
| 3 BOX | \$300 |
| 4 BOX | \$400 |
| 5 BOX | \$500 |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미디어 중앙 생활안내 Classified

미디어 중앙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571-239-6054

1. 브리스타타운홈 \$689,000
Victory Lakes 단지내에 있는 관리 아주 잘된
타운하우스, 교통/생활편리,
6/25일에마켓에 올라올 예정
2. 애난데일 싱글홈 \$700,000
좋은 위치에 있는 반듯한 땅의 집, 생활 가능하
나As-Is Condition으로 매매
3. 비엔나 싱글 하우스 \$1,390,000
방5, 화3.5, 타이슨스 DMV 근처, 위치 좋고
조용한 동네
▶703-625-9909

클럽톤콘도 \$379,000
호수를 품고 있는 멋있는 단지, 방2, 화2, 완전
히업데이트된 집, 새 페인트,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고급 SS Appliances, 새 Washer
& Dryer, 넓은 거실, 계단 없는 1층, H마트 1
분 거리
▶703-813-8949

1. 센터빌타운홈 \$595,000
방3, 화3.5, 2 assigned parking
지붕, 부엌(2024), 욕실(2026), HVAC 등
업그레이드된 집
2. 클럽톤 싱글홈 \$1,120,000
방4, 화3.5, 집 전체 수리 많이 된 집
3. 비엔나 콘도 \$339,000
방1, 화1 + 덴, 비엔나 중심 위치, 전체 마루,
넓은 욕, 가스/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703-919-0472

1. 페어팩스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군
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
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sf
▶703-231-5572

1. 엘리트 시티 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 2, 밝고 이쁘게 잘 꾸며
진 집, 넓은 뒷뜰
2. 포도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포도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410-417-7080

사업체 매매

** K BBQ & HOT POT 급매 \$245,000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최근 리모델링
240-988-6868

** 미장원 급매
5일 영업, 월 순수익 \$6,000,
알링턴 VA, 좋은 동네, 발전 가능성 많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박

1. 애난데일 실내골프장, 최적의 장소
3천 & 6천 sf, Safeway 건너편, 높은 천정
2. 애난데일 식당, Buyer가 자리 찾고 있음.
2nd Generation 비즈니스 원함,
타이 음식점 예정
3. Falls Church VA 치킨 프랜차이즈 식당
\$20만
4. Alexandria VA 포도맥야드 근처
Bakery or K BBQ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리스스페이스 5,700sf, 1층
5. Alexandria VA 포도맥야드 태권도장한
자리, 2,700sf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DC 상업용빌딩 w/컨비니언 스토어
\$1.95M 코너라, 단독 빌딩 유니언마켓
근처, 계속 개발중인 지역, 강추!
2. 애난데일 236 대로변, 2층 25,000sf
리스스페이스, Bakery, 식당, Beauty
store, 실내골프장, Great parking
3. 급구! 애난데일에 위치한 식당을 찾는
바이어 대기중
메가 부동산 703-534-4989

1. 스시집 매매
워싱턴 DC, 6일 오픈, 월 순수익 2만5천
렌트 \$5,200 (Com Tax 포함)
2. 일본 식당 매매
MD 그린벨트 근처, 월 순수익 3만 5천,
주매상 3만
(문의) 240-381-8263 Hahn
703-929-6689 로라박

성업중인 세탁소 (Dry Cleaners) 매매
- 최적의 입지: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쇼핑
센터내 위치
- 30년 안정운영, 많은 단골 고객층 확보

5마일내 경쟁업체 무, 무한한 성장 잠재력
- 완벽한 설비 시설
- 매매가 협상 가능, 방문 환영
- Manassas, VA
(문의) 한국어: 703-678-9790
영어: 703-499-2466

비어와인 컨비니언 스토어 매매
- 월 1만5천 순수익
- 매매가 15만+ 인벤토리
- 메니저먼트 가능, 피터스버그 VA
(문의) 703-229-9702

버지니아 프레드릭스버그 이발소 매매
- 고정 단골 손님 많음
- 월세 \$2500, 월 순수익 \$6천 이상
- PT 일하실분 구함
703-907-9541 (문자 주세요)

40년 성업중인 테일러샵 매매
은퇴 관계, 좋은 조건, 리치몬드 중심지
703-937-7261

1. 퀸티코 VA, 근 부대안 3층 상업용 빌딩
5,300sf \$1.1M
2. 페어팩스 VA, 4층 빌딩 13,000sf
임대 완료 \$4.5M
3. 알렉산드리아 VA, 커머셜 Lease Space
6,500sf, 1층 대로변, 포도맥야드 근처,
편리하고 넉넉한 주차, DC에서 10분
4. 타이슨스 VA, 커머셜 Lease Space,
1,800sf
▶ 메가 703-534-4989

성업중인 픽업 스토어 매매 \$7만 (스태프드)
웃수선 전문, 저렴한 렌트비 (\$3,000/월)
문의: 703-231-5572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타이식당, 주매상 \$1만8천, 대로변,
굿파킹, 저렴한 렌트, Fairfax co, VA
3. 치킨 식당, 주매상 \$2만3천,
렌트 \$4,500, VA
4. 일식당, 주매상 \$2만, \$16만
5. 애난데일 식당,
'포차'로 운영하기 최적의 장소
▶ DJ Lee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라,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트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차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 문미애 703-534-4989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 예정
443-618-8100

중고 매매 / 기타

명품 중고 골프 클럽 싸게 팝니다.
703-966-9072 (Kim)

무빙 세일합니다.
고급 리빙룸 셋, 책장, 도자기, 고급 일본 접시,
노래방 기계, 금고, 병풍등등
301-801-9921

케이 퍼플에서 간병사 교육합니다
기간: 7/13 - 7/17 전화예약 필수
▶ 571-297-4747 (VA)
▶ 301-966-7000 (MD)

현대산타페 스포츠 2.0 터보 2017년
풀옵션 10만 마일, \$13,000 상태 매우 양호
703-618-7924

피아노 레슨 합니다.
유치부,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특
수 아동,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건축/페인트/마루

밀워키 캐비닛 공장에서 목수 구인
덜레스 공항 근처 (Dulles, VA)
- 가구 페인트/스테인 경험자
- 가구 제작 헬퍼/ 주니어 목수
성실하고 취업 경력 사유 없는분
703-859-2499 (문자/전화)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본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 571-213-8678

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 703-835-0945

형제 건축 & 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 703-928-6255

애버샤인 건축
카친, 부엌,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및
페디오, 펜스, 텍, 기타 집수리, VA/DC 라이선스
스보유, 오랜 경력, 보험 가입
▶ 703-994-2943

TOP 건축 콜롬비아 MD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 (In &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
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드맨 서비스
▶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 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
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
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 240-687-5155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
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
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안전한 미
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
드립니다.
▶ 703-598-3316

옴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 보험
▶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 보험
▶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사업용자/재정상담
▶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 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 NRPP 면허소지
▶ 202-774-6554

냉동/히팅

SD Mechanical에서 테크니션 모집
-냉장, 냉동쪽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분
-서비스 지역 VA, MD, DC
-지원 방법: Sdmtech.office@gmail.com
Phone: 703-447-4683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팅,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선타장비, 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 연중 무휴 무료점검
▶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 443-280-1873

정성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 301-572-2786/403-953-0801

보석/웨딩

▶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 드레스 & 텍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예산 선정
▶ 703-642-2247

골드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 시공은 끝까
지 책임집니다.
▶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스
팀 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브러쉬
파워 풀 청소, 응급 수해 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 703-967-4155

플러밍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 메케닉
▶ 703-220-1400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703-989-0103

홀스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
새는것, 하수막힘/변기 교체, 셉텀프 교체
571-594-4080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 교체,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팎 물새는 것
▶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페
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 쓰이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 드립니다.
▶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 703-298-1919

HD 현대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 703-339-8844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가터, 루핑, 데크 등
▶ 571-594-4080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 703-929-9601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 · 기술력과 서비스 · 경쟁력있는 가격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6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수아 미용 타투

SERVICE LIST

- 두피 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 눈썹, 아이라인, 입술
- 속눈썹/헤어 생장술
- MTS (미백, 주름개선 세럼)
- 스킨케어



443-722-592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가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용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인테리어 / 사진관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미디어 중앙안에
있습니다

미디어 중앙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의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집·가게 수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은 일도 열심히 해드립니다.

VA **703-340-5858**
MD **443-980-5858**

Homes Plumbing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씽폼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License / Insurance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궁금한 기사
미디어 중앙안에
있습니다

미디어 중앙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블라인드 / 틈트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낱말퀴즈 & 스도쿠

| | | | | | | | | |
|----|----|----|----|----|----|----|----|----|
| 1 | | 2 | | | | 3 | | 4 |
| | | 5 | 6 | | 7 | | | |
| | 8 | | | | 9 | | 10 | |
| 11 | | | 12 | 13 | | | 14 | 15 |
| | | | | | | | | |
| 16 | 17 | | 18 | | 19 | | 20 | |
| | 21 | 22 | | | 23 | 24 | | |
| 25 | | 26 | | | 27 | | | 28 |
| 29 | | | | | | 30 | | |

가로열쇠

(1)국물이 있는 음식 속에 들어 있는 국물 이외의 것 (3)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뛰어내릴 때 꼭 있어야 하죠 (5)사람의 죽음을 알릴 (7)개골창 물이 흘러 나가도록 길게 판 내 (8)높은 온도에서 달군 금속 재료를 물에 넣어 급격하게 식히는 일 (9)심성. 마음보 (11)살이 찌서 뚱뚱한 사람 (12)닭의 새끼 (14)옥살이를 하는 고생. ~를 치르다 (16)다음이나 버금. 만이 이외의 자식들. 아니 만자식만 자식이고 ~는 어디 자식 아니란 법도 있나 (18)모르는 사람과 처음으로 인사할 때 성과 이름을 서로에게 알려 줌 (20)옥십자가 같다는 뜻으로, 같은 나이를 이르는 말. 네 아 버지하고 나하고 ~이야 (21)날마다 또는 늘 있는 일. 예삿일 (23)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집안의 사람. ~ 가문의 자손 (26)투명한 석영. 불순물이 섞임에 따라 자색이나 검은색 파우의 색깔을 띠게 된다. 장식품이나 광학용 기계에 쓰인다. 크리스털 (27)슬데없이 말수가 많음 (29)세상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정도 (30)밀가루를 반죽하여 맑은장국이나 미역국 파우에 적당한 크기로 떼어 넣어 익힌 음식

세로열쇠

(1)서로의 건강이나 행복을 빌면서 함께 술을 마 시죠 (2)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 (3)세상과 인생을 즐겁고 좋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 (4)산에서 나는 나물. ~ 비빔밥 (6)고치기 어려운 병 (7)아무렇게나 지 켜이는 조리 없고 당치 않은 말. 이 녀석이 지금 무슨 ~ 하고 있는 거야? (8)채무를 일정기한 안에 확실히 갚도록 보장하는 법적 수단이죠 (10) 큰 죄를 짓고 죽으면 이곳에 가서 벌을 받지요 (11)영리한 행동이나 생각. 땅속줄기는 감자 모양이며, 덩이줄기는 사료나 알코올의 원료로 쓰인다. 돼지감자. 그 무슨 ~처럼 난데없는 소리 냐? (13)여럿이 함께 기세를 울려 악을 쓰며 부르짖는 소리 (15)늙은 부모를 산속의 구렁이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례를 지냈다는 풍습 (17)햇볕을 가리기 위하여 치는 포장 (18)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19)총이나 활을 매우 잘 쏘는 사람 (20)첫째가는 큰 부자 (22)물을 관을 통하여 보내 주는 설비 (24)거의 모두 다 (25)가장 굵은 손가락이나 발가락 (28) 흥분에게 박 씨를 물어도 주었죠

스도쿠

| | | | | | | | | |
|---|---|---|---|---|---|---|---|---|
| 4 | | | 3 | | 6 | 1 | | |
| | | | 2 | | | 7 | | |
| 8 | | | | | | | 6 | 2 |
| | 4 | 2 | | | | | | |
| | | 3 | | 8 | | | | 9 |
| | | 8 | 5 | 6 | 4 | | 1 | 3 |
| 6 | | | | 1 | 3 | | | |
| 3 | | | 7 | | | 6 | | 5 |
| 2 | | | | | | 3 | 8 | |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 | | | | | | | | |
|---|---|---|---|---|---|---|---|---|
| 2 | 7 | 9 | 6 | 4 | 5 | 3 | 8 | 1 |
| 3 | 8 | 1 | 7 | 2 | 9 | 6 | 4 | 5 |
| 6 | 5 | 4 | 8 | 1 | 3 | 9 | 2 | 7 |
| 7 | 9 | 8 | 5 | 6 | 4 | 2 | 1 | 3 |
| 5 | 6 | 3 | 1 | 8 | 2 | 4 | 7 | 9 |
| 1 | 4 | 2 | 9 | 3 | 7 | 8 | 5 | 6 |
| 8 | 3 | 7 | 4 | 9 | 1 | 5 | 6 | 2 |
| 9 | 1 | 6 | 2 | 5 | 8 | 7 | 3 | 4 |
| 4 | 2 | 5 | 3 | 7 | 6 | 1 | 9 | 8 |

| | | | | | | | | |
|---|---|---|---|---|---|---|---|---|
| ㅁ | ㅂ | ㄷ | | | | ㅅ | ㅇ | ㅈ |
| ㅊ | | ㅋ | ㄴ | | ㅇ | ㅈ | | ㅊ |
| | ㅊ | ㅊ | ㅈ | ㅈ | ㅈ | ㅈ | ㅈ | ㅈ |
| ㅈ | | | ㅈ | | | | | ㅈ |
| ㅈ | ㅈ | | ㅈ | ㅈ | ㅈ | | ㅈ | ㅈ |
| | ㅈ | ㅈ | ㅈ | | ㅈ | ㅈ | | |
| ㅈ | | ㅈ | ㅈ | ㅈ | ㅈ | | ㅈ | ㅈ |
| ㅈ | ㅈ | ㅈ | | | ㅈ | ㅈ | ㅈ | ㅈ |

성공 비즈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중앙
THE KOREA TODAY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30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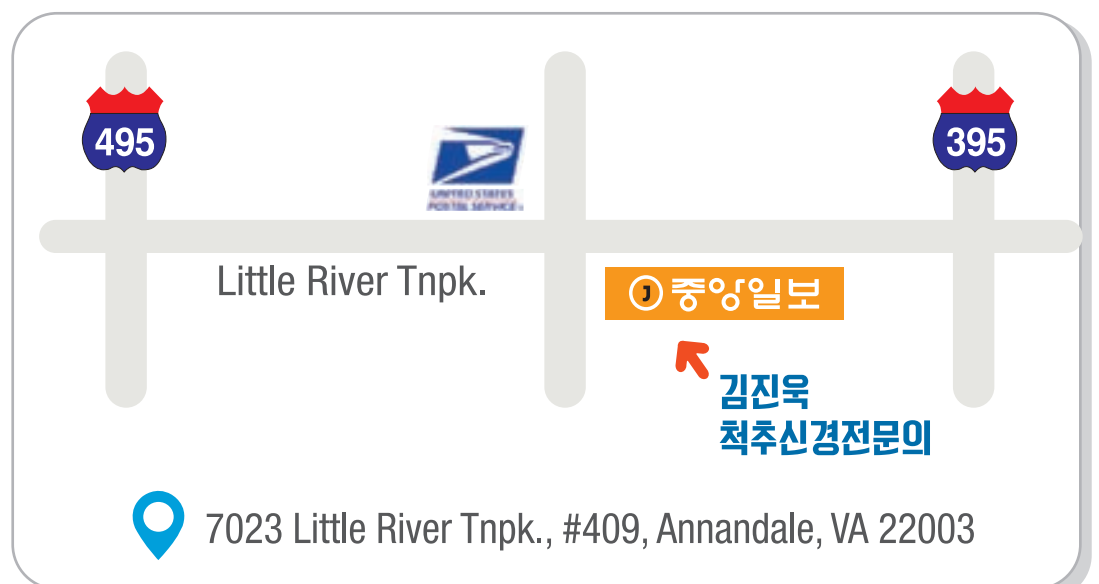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뻐뻐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